

정 소 우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중학교 영어교과서의 대화문 분석:
요청 표현을 중심으로

2005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영어교육전공

김 미 연

중학교 영어교과서의 대화문 분석:
요청 표현을 중심으로

정 소 우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4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영어교육전공

김 미 연

인준서

김미연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 _____ (印)

심사위원 _____ (印)

심사위원 _____ (印)

2004년 12월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논문개요

본 연구의 목적은 중학교 영어 교과서에 실린 대화 예문을 분석 하여 원어민이 사용하는 표현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알아보고, 차후 영어 교과서의 개발에 도움이 되고자 함이다. 외국어로서의 영어 학습은 영어 교재에 의존 하며 따라서 학습자들이 다양한 상황에서 원어민과 같은 대화를 익히기에 제약점을 갖고 있으리라는 가정 아래 연구를 시작 하였다.

본 연구는 Gibbs의 요청 표현 유형의 분포와 사회적 관계(사회적 지위와 사회적 거리)를 분석 기준으로 삼았다. Gibbs의 요청 표현 유형은 미국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와 분석으로부터 얻어진 결과이다. 이 유형을 분석 기준으로 삼은 이유는 영어를 사용하는 원어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주로 사용하는 요청 표현 분포를 13가지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분석 기준으로 적합할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요청 표현은 상황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대화자 사이의 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대화자들의 사회적 관계를 9가지로 분류하여 기준으로 삼았다. 분석 대상으로 중학교 영어 교과서 4종을 선택하였고 분석 내용은 4종 교과서 1학년부터 3학년까지 12권의 교과서에 실린 총5,222개의 대화 예문에 대하여 Gibbs의 13가지 요청 표현 유형에 따라 산출한 빈도수와 대화자들의 사회적 관계를 9가지 경우에 적용하여 분석한 것을 주로 담고 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얻어진 분석의 결과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첫째, 영어 교과서가 보여주고 있는 요청 표현 분포는 Gibbs의 요청 표현 분포와 큰 차이가 있었다. 영어 교과서는 4종 모두 직접 질문의 요청 유형에 50%이상 편중되어 있고, 다양한 요청 표현이 결여되었다. Gibbs의 분

포도에서는 희망 요청 유형이 20%로 가장 많이 사용된다고 하였으나, 교과서는 4%를 나타내어 표현 양식에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교과서에서 두 번째로 높은 빈도수를 보여준 것은 직접 요청으로 14%로 사용되었다. Gibbs의 분포도에서는 5%를 보여주고 있어 대조적이다. 4종의 교과서는 학년이 올라가면서 다른 요청 표현을 미비하게 제시하지만 편중 현상은 여전하다.

둘째, 교과서 대화 예문은 사회적 관계의 제시에 소홀하여 대화자들의 사회적 지위나 거리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총69%) 두 번째로 자주 설정된 관계는 친구 관계로 18%를 차지하였다. 그리고 3년의 과정에서 계속 치중된 사회적 관계를 제시하고 있는 문제점을 보인다. 다양한 사회적 관계를 제시하지 않음에 따라 상황도 제한적으로 나타나며, 첫 번째 결과에서 직접 요청이 많이 사용된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각 교과서들은 공통적으로 공손한 대화의 전개 방법에 관심을 보이거나, 대화자들의 사회적 관계와 대화 표현에 있어 상관관계를 염두에 두지 않아서 실제 사용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을 남긴다.

이와 같은 결과는 영어 교재에 실린 대화 예문을 통해 원어민과 유사한 표현을 학습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려 준다.

따라서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영어 교과서는 다양하게 요청 표현을 보여주어야 하며, 동시에 사회적 관계를 분명히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Gibbs의 연구에서 고찰된 것과 같이 요청 표현은 상황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가능한 다양한 상황에서 다양한 사회적 관계를 제시하여 적합한 대화 표현을 익힐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목 차

논문 개요

1. 서 론	1
2. 요청 표현과 공손 표현	4
2.1 Gibbs의 13가지 요청 표현 유형에 대하여	4
2.2 공손 표현이란 무엇인가?	7
3. 교과서 분석	10
3.1. 분석의 실제	10
3.1.1 분석 목적	10
3.1.2 분석 대상	11
3.1.3 분석 기준	12
3.2 분석 내용	13
3.2.1 A 출판사 교과서의 대화 분석	13
3.2.1.1 A 출판사 1학년 교과서의 대화 분석	14
3.2.1.2 A 출판사 2학년 교과서 대화 분석	19
3.2.1.3 A 출판사 3학년 교과서 대화 분석	24
3.2.2 B 출판사 교과서의 대화 분석	32
3.2.2.1 B 출판사 1학년 교과서의 대화 분석	34
3.2.2.2 B 출판사 2학년 교과서 대화 분석	41
3.2.2.3 B 출판사 3학년 교과서 대화 분석	46
3.2.3 C 출판사 교과서의 대화 분석	52
3.2.3.1 C 출판사 1학년 교과서의 대화 분석	53
3.2.3.2 C 출판사 2학년 교과서의 대화 분석	57

3.2.3.3 C 출판사 3학년 교과서의 대화 분석	62
3.2.4 D 출판사 교과서의 대화 분석	70
3.2.4.1 D 출판사 1학년 교과서 대화 분석	71
3.2.4.2 D 출판사 2학년 교과서의 대화 분석	72
3.2.4.3 D 출판사 3학년 교과서의 대화 분석	76
 4. 결 론	 85

참 고 문 헌

ABSTRACT

표 목 차

<표 1> Gibbs의 요청 표현의 유형과 의미	6
<표 2> 분석 대상 교과서	11
<표 3> 사회적 관계표	13
<표 4> Gibbs의 요청 표현에 따른 교과서 분석 (A 1)	19
<표 5> 사회적 관계에 의한 교과서 분석(A 1)	19
<표 6> Gibbs의 요청 표현에 따른 교과서 분석 (A 2)	24
<표 7> 사회적 관계에 의한 교과서 분석(A 2)	24
<표 8> Gibbs의 요청 표현에 따른 교과서 분석 (A 3)	28
<표 9> 사회적 관계에 의한 교과서 분석(A 3)	29
<표 10> Gibbs의 요청 표현의 유형에 따른 교과서 분석(A 출판사)	30
<표 11> 사회적 관계에 의한 교과서 분석(A 출판사)	32
<표 12> Gibbs의 요청 표현에 따른 교과서 분석 (B 1)	41
<표 13> 사회적 관계에 의한 교과서 분석(B 1)	41
<표 14> Gibbs의 요청 표현에 따른 교과서 분석 (B 2)	45
<표 15> 사회적 관계에 의한 교과서 분석(B 2)	45
<표 16> Gibbs의 요청 표현에 따른 교과서 분석 (B 3)	49
<표 17> 사회적 관계에 의한 교과서 분석(B 3)	49
<표 18> Gibbs의 요청 표현의 유형에 따른 교과서 분석(B 출판사)	50
<표 19> 사회적 관계에 의한 교과서 분석(B 출판사)	51
<표 20> Gibbs의 요청 표현에 따른 교과서 분석 (C 1)	56
<표 21> 사회적 관계에 의한 교과서 분석(C 1)	56
<표 22> Gibbs의 요청 표현에 따른 교과서 분석 (C 2)	62
<표 23> 사회적 관계에 의한 교과서 분석(C 2)	62

<표 24> Gibbs의 요청 표현에 따른 교과서 분석 (C 3)	67
<표 25> 사회적 관계에 의한 교과서 분석(C 3)	67
<표 26> Gibbs의 요청 표현의 유형에 따른 교과서 분석 (C 출판사)	68
<표 27> 사회적 관계에 의한 교과서 분석(C 출판사)	69
<표 28> Gibbs의 요청 표현에 따른 교과서 분석 (D 1)	72
<표 29> 사회적 관계에 의한 교과서 분석(D 1)	72
<표 30> Gibbs의 요청 표현에 따른 교과서 분석 (D 2)	76
<표 31> 사회적 관계에 의한 교과서 분석(D 2)	76
<표 32> Gibbs의 요청 표현에 따른 교과서 분석 (D 3)	81
<표 33> 사회적 관계에 의한 교과서 분석(D 3)	82
<표 34> Gibbs의 요청 표현의 유형에 따른 교과서 분석 (D 출판사)	82
<표 35> 사회적 관계에 의한 교과서 분석(D 출판사)	84
<표 36> Gibbs의 요청 표현의 유형에 따른 4종 교과서 분석	85
<표 37> 사회적 관계에 의한 4종 교과서 분석	87

1. 서 론

의사소통의 중요한 수단은 언어이다. 언어를 통하여 인간은 자신의 느낌과 생각을 표현 한다. 언어를 통한 의사소통은 상대방과의 대화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화자 자신이 발화한 언어가 상대방 또는 타인에게 어떻게 전달되어 느껴지며 이해될 것인가를 염두에 두게 된다. 특히 일상생활의 대화는 상대방에게 제안이나 요청하는 경우가 많으며 화자는 자신의 제안이나 요청이 성공적으로 잘 전달되는지를 고려하게 된다. 이때 화자 자신의 입장보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게 되고 요청이나 제안할 때 공손한 표현을 사용하여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목적으로 하게 된다.

공손한 표현이 하나의 어법으로 자리하고 있지만 어떤 표현이 다른 표현보다 얼마나 공손한 표현인지 단순하게 정의하기 어렵다. 이는 공손한 표현이 하나의 문장 표현으로 혼자서 존재하지 않고 상황과 대화자들 사이의 관계 등의 변수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요청하는 상황에서 공손한 표현을 적절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대화의 상황과 대화자들 사이의 관계를 먼저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공손한 표현은 자기중심의 사고로부터 벗어나 타인 중심으로 옮겨지는 확장된 사고의 표현이다. 모국어 사용자들은 공손한 표현을 사용하기 위해 성숙한 사고가 필요하며 모국어가 사용되는 문화의 관습에 많은 영향을 받게 된다. 예를 들어, Thomas(1983)는 문화 간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들어 의사소통의 화용론적 실패를 화용언어학적 실패와 사회화용론적 실패로 구분하였다. 화용언어학적 실패는 화용론적 규칙들이 언어적으로 실현되는 방식이 문화 간에 달라서 모국어의 형태를 목표어에 전이 시킬 때 나타나는 것이고, 사회화용론적 실패는 사회문화적인 가치관의 차이로 인해 의사소통상에

오해가 발생한다고 하였다. Thomas는 사회문화적 가치관의 차이로 인한 의사소통의 오해가 더 심각하고 수정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제2외국어 학습자들이 공손한 표현을 습득하는 과정에서 언어 지식에 대한 학습은 물론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이를 상황마다 적절하게 적용시켜야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제 7차 교육과정에서 영어의 의사소통 기능을 강조했다.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상황과 대화자사이의 관계를 고려한 요청 표현을 사용하고 습득하는 것은 중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행되는 영어 수업은 교과서를 통해 이루어지며, 교과서에 제시되는 상황이 한정적일 수밖에 없어, 다양한 변수에 지배되는 요청 표현을 배우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리라 예상된다. 우리나라의 중등 영어 교육의 상황 중심적 제시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학습자들이 어떻게 상황 중심의 요청 표현을 익히고 있는지를 교과서의 대화 분석을 통하여 알아보하고자 한다.

우리나라 중학교의 영어 교과서 총 13종 가운데, 4개사의 출판사에서 발행하는 영어교과서를 중학교 1학년 과정부터 3학년 과정을 대상으로 하였고 교과서 내용 중 대화부분의 모든 지문을 요청 표현과 함께 상황과 대화자사이의 사회적 관계를 고려하여 적합이 사용되고 있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이때 4개사의 출판사는 임의로 선정하였다. 전 학년을 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대부분 중학교 3년 과정동안 한 출판사의 교과서를 교재로 학습하기 때문에, 각 출판사의 교과서가 3년 과정의 연계성을 얼마나 고려하고 있는지 알아보하고자 함이다.

본 연구의 문제점은 요청 표현을 살펴보기 위하여 분석 기준으로 삼은 Gibbs(1981)의 연구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중학교 영어 교과서에 적용하기에 무리가 있다는 점이다. 대학생들이 일상생

활에서 사용하는 표현과 중학생들의 일상생활에서 주로 사용하는 표현들이 차이가 있다. 한편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영어 표현은 중등 영어에서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의사소통 기능으로써 영어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결여되거나, 편중된 표현 방식의 습득은 이후 상급 교육과정의 영어 표현 방식에 문제점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중학교 영어 교과서의 요청 표현을 살펴보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알아보는 작업이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2. 요청 표현과 공손 표현

2.1 Gibbs의 13가지 요청 표현 유형에 대하여

다양한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는 요청 표현은 공손 표현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상황과 대화자 사이의 관계에 따라 공손 표현은 달리 나타날 수 있다. 그러므로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들의 다양한 요청 표현을 조사하는 것은 영어를 외국어로 습득해야 하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교과서가 학습자에게 다양하게 요청 표현을 제시하고 있는지 비교할 수 있어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된다.

Gibbs는 1981년,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16가지의 다양한 상황을 만들어 제시하고, 제시된 상황에서 어떻게 요청하는지 연구 하였다. 이 실험에서 얻어진 요청 표현은 모두 2,178개 이었으며, 이를 분석하여 유형에 따라 13가지로 분류 하고 각 유형의 의미를 밝혔다(표 1 참조). Gibbs는 이 보고서에서 각 요청 표현은 상황과 대화자에 따라서 적절한 사용법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서 대화가 이루어지는 상황의 중요성을 지적했다.

다음은 Gibbs(1981)의 실험에서 제시한 상황과 그에 따른 요청 표현의 관습화된 적합한(conventional)표현과 부적절한(nonconventional)표현을 보여주는 예이다.

장소: Computer center

상황: Sam was taking a statistics course from the psych. dept. One of the

assignments was to analyze some data. To do this, students had to go over to the computer center. When Sam went there, he didn't know how to work the keypunch. He said to someone next to him who looked like they knew what to do.

"Can you show me how this machine works?" (적합한 표현)

"Any help I could get would be appreciated?"(부적절한 표현)

"Help me work this machine."(가능한 표현)

Gibbs는 1986년, 위의 실험을 기초로 하여 상황에 따라 간접 요청이 적절하게 또는 부적절하게 여겨지는 문제를 연구하였다. Gibbs(1986)가 예시한 다음의 대화 예문은 상황의 역할과 대화자 사이의 관계가 요청 표현에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 가를 보여주고 있다.

상황: Barbara and her roommate were getting dressed to go out. Barbara wanted something to wear with her same old blue pants. She wanted to wear her roommate's baby-blue cashmere sweater. Her roommate usually lets her borrow it, but she may have taken it to the dry cleaners that day. So Barbara is not sure that roommate is able to let her have it. So Barbara says to her...

"Can you possibly lend me your blue sweater?" (적합한 요청)

"Would you mind lending me your blue sweater?" (부적절한 요청)

"Lend me your blue sweater?" (표현 가능한 요청)

또, 학생들이 표현한 요청 표현을 근거로 13가지의 각각의 유형 빈도수를 산출하여 보여주었다.(표 1 참조) <표 1>을 살펴보면 영어 모국어 사용자들

의 유형별 요청 표현 빈도를 알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영어 교과서가 보여주는 대화 예문이 상황에 맞는 적절한 요청 표현을 사용하는지 비교 분석의 기준으로 삼고자 한다.

<표 1> Gibbs의 요청 표현의 유형과 의미

유형	의미	빈도(%)
1. 희망	청자가 행동으로 실행해 주기를 바라는 화자의 특정한 요구나 강한 소망의 표현 예) I would like...	20
2. 가능	화자의 요구를 청자가 실행 가능한가를 묻는 표현 예) Can...?	16
3. 진술	청자의 특정한 행동을 기대하며 말하는 화자의 진술 표현 예) That's my tennis ball.	12
4. 허가	화자의 요청을 청자가 승낙할 수 있는가를 묻는 표현 예) May I...?	12
5. 직접 질문	화자에게 묻는 직접 질문. 다른 요청 표현과의 뚜렷한 차이점은 직접 질문의 요청에 대한 응답은 질문한 내용 자체에 관한 답변이라는 것이다. 예) What time is it?	12
6. 이름	청자가 특별한 행동을 보이도록 어떤 대상물을 언급하는 표현 예) Hamburger.	8
7. 소유	청자가 화자에게 기대하는 행동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는지에 대하여 묻는 표현	6

	예) Do you have...?	
8. 직접 요청	청자에게 직접적이고 명령적으로 요구하는 화자의 표현 예) Give me a hamburger.	5
9. 부 과	청자가 직접 화자의 요청을 받아줄 수 있는지 부과의 의미를 갖는 표현 예) Would you mind...?	3
10. 위 임	화자의 요청에 대해 청자 자신을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의 의미를 갖는 표현 예) Will you...?	3
11. 비정형	일반화된 유형이 없는 소수의 특별한 표현들 예) How about a hamburger?	2
12. 내 포	요청 표현의 한 유형을 내포문에 사용하여 묻는 표현 예) I was wondering if you could...?	1
13. 의 무	화자가 원하는 행위에 청자가 수행할 의무를 갖는지 여부를 묻는 표현 예) Shouldn't you...?	0.1

2.2 공손 표현이란 무엇인가?

공손 표현에 대한 이론 중 널리 알려진 Brown & Levinson (이하 B&L)의 공손 이론을 토대로 공손 표현이란 어떠한 것인지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자.

B&L은 모든 인간은 자존심과 관계있는 체면(face)을 갖는다고 하였다. 체면은 두 가지로 구성되는데, 긍정적 체면과 부정적 체면이 그것이다. 긍정적 체면은 타인에게 좋게 생각되기, 인정받기를 바라는 적극적인 소망이다. 부정적

체면은 자신의 영역을 침해 받지 않기를 바라는 소극적인 소망이다. 예를 들어 자신(청자)이 타인으로부터(화자) 무엇인가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으면 청자는 간섭받지 않기를 원하는 부정적 체면을 위협받게 되는 것이다. 이런 경우 체면 위협 정도를 완화하여 부드러운 대화를 이끌기 위해 사용하는 표현이 공손한 표현이다. 공손한 표현을 위한 책략도 체면과 마찬가지로 긍정적 공손 표현과 부정적 공손 표현의 두 가지로 구성된다. 긍정적 공손 표현의 방법으로는 대화자들이 서로 협력관계를 조성하여 공감대를 주장하는 방법 등이 있다. 다음의 예문을 보자.

Sujin: He planted trees in the desert for forty years. And the desert changed into a forest.

Cathy: For forty years? That's incredible!

Sujin: At first nobody thought he could do it, but he made it.

Cathy: Wow! What a great man!

Sujin: He taught me an important lesson, "Human are able to change the world."

Cathy: I couldn't agree more.

(천재 출판사 영어 교과서 2학년, p.210)

위의 예문은 상대방이 언급한 말을 반복하고 동의하여 상대방의 말을 인정하고 있다. 상대를 인정함에 따라 상대의 긍정적 체면을 유지하게 해 준다

다음은 부정적 공손 표현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부정적 공손 표현은 상대의 영역을 침해하지 않으려는 공손한 방법이다. 부정적 공손 표현에 대하여 B&L은 특히, 서구 문화에서 발달되었고 위협 행위를 완화하는 표현이 관례화

되었다고 언급했다. 부정적 공손 표현의 방법에는 간접화행과 완화 표지의 사용 등이 있다. 예를 들어, "Can you please pass the salt?"는 상대방의 능력 여부를 묻는 질문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직접요청 "Pass the salt."보다 상대방의 부정적 체면(간섭받고 싶지 않은 소극적 소망)에 덜 위협적이다. 다른 대표적인 부정적 공손 표현은 완화 표지의 사용이다. 완화 표지는 청자에게 부탁에 대한 부담감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여, 부정적 체면에 대한 위협을 감소시킨다. 다음의 예문에서 "I wonder if I can~" 과 같이 표현하는 경우이다.

Man: What field are you interested in, please?

Mike: I'm interested in teaching. I wonder if I can teach in the evening school.

Man: Sure. May I ask who's calling, please?

(지학 출판사 영어 교과서 3학년, p.228)

위의 예문은 "I wonder~"같은 표현이 Mike의 요청에 대하여 Man이 거절할 여지를 남겨두어 Man의 부정적 체면 위협을 감소시켜 주고 있다.

이와 같이, B&L의 공손 이론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보고 공손 표현이 언제,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아보았다. 즉, 공손 표현은 요청 상황에서 자주 쓰이며 상대방의 체면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상황에 맞는 적절한 요청 표현을 사용하는 행위인 것이다.

3. 교과서 분석

3.1. 분석의 실제

3.1.1 분석 목적

우리말에서 공손한 표현이 중요한 어법이듯, 영어에서도 공손한 표현은 대화를 완성하는 중요한 방법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손한 표현은 요청 상황에서 빈번히 필요한 방법이며 따라서 공손한 표현을 적절히 사용하기 위해 요청 표현을 이해하고 상황과 상대방에 맞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외국어로 영어를 배우는 우리나라의 경우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과서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그러므로 영어 교과서의 대화 내용 중 요청 표현을 영어 모국어 사용자들의 표현과 비교 분석하여 차이점과 문제점을 밝히려 한다.

모든 대화가 상황이 중요한 것과 같이 요청 표현도 상황과 대화자 사이의 관계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요청 표현을 비교 분석함과 동시에 요청 표현의 대화문에서 상황과 대화자 사이의 사회적 관계가 다양하고 자세하게 제시되어 학습자들의 대화 학습에 도움을 주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끝으로, 제시된 대화 예문들이 공손한 표현으로 자연스럽게 전개 되는지의 여부를 파악하여 원어민과 대화함에 어색함이 없는 대화 방식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가를 알아보는 것이 교과서 분석의 목적이다.

3.1.2 분석 대상

분석 대상은 제7차 교육과정의 4종 출판사의 중학교 영어 교과서이다.(표 2 참조)

4종 교과서의 선정은 임의로 하였다. 참고로, 서울과 경기지역의 138개 중학교의 영어 교과서 사용 비율 현황은 A- 12.3%, B- 10.1%, C-17.4%, D- 26.1%를 나타내어 일부 지역이긴 하나 D 출판사의 교과서 사용 비율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2004년 9월 기준)

4종 출판사의 교과서 1학년에서 3학년까지를 분석대상으로 하며, 교과서에 실린 예문이 모두 다르다 예상하여, 총 12권의 교과서를 분석하게 된다.

분석 범위는 교과서 내용 중 의사소통 기능을 학습하는 파트(Talk, Dialog, Speaking등으로 표시)는 물론 Listening, Reading 파트 등 교과서에 실린 모든 내용에서 다루어지는 대화 예문을 분석하기로 한다.

<표 2> 분석 대상 교과서

	교과서 출판사	저 자
A	(주)두산	김성곤외 4인
B	(주)디딤돌	김용진외 7인
C	(주)지학사	이성호외 5인
D	(주)천재교육	이병민외 4인

3.1.3 분석 기준

첫째, 교과서 대화 내용의 요청 표현 분석을 위하여 Gibbs의 요청 표현 유형을 기준으로 하여 대화문에서 언급되는 요청 표현의 횟수를 집계한다. 그 다음 13가지 요청 유형의 분포도를 산출한다. 단원의 학습 목표가 “요청하기”로 주어진 경우 외에도 대화자가 말한 개개의 표현을 모두 분석 한다. (표 1 참조)

둘째, 상황과 대화자간의 사회적 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표 3> 사회적 관계표의 기준을 따른다. <표 3>은 사회적 지위와 사회적 거리에 따라 대화 참여자들의 관계를 7가지 상황으로 나누어 언급하고 있는 홍 이선(2002)의 사회적 관계표를 토대로 하여 8번째와 9번째 경우를 첨가하여 보완한 것이다. 여기서 사회적 지위는 화자와 청자와의 관계에서 지위가 동등한지, 화자가 청자보다 지위가 낮거나 높은지에 따라서 구분된다. 그리고 사회적 거리는 대화 참여자들의 관계, 예를 들어 ‘친구’, ‘가족’, ‘아는 사람’ 그리고 ‘모르는 사람’인지에 따라 구별 된다(홍 이선, 2002). 그리고 상황을 제시하는 글에서 친구 사이라고 명확히 제시한 경우만 ‘친구’로 분류하였으며, 상황이 대화 서두에 전혀 제시되지 않은 경우 사회적 지위와 사회적 관계를 알 수 없는 8번 경우에 해당하며, 사회적 지위에 대한 정보가 제시되고 있지 않으나, 대화에서 상대방의 이름을 알고 있을 때는 9번에 해당하게 된다.

<표 3> 사회적 관계표

	사회적 지위	사회적 거리	예
1	화자 = 청자	아는 사람	친구의 친구, 이웃사이
2	화자 = 청자	모르는 사람	리포터와 질문 받는 사이
3	화자 = 청자	가족	형제사이, 부부사이
4	화자 = 청자	친구	친구사이
5	화자 > 청자 화자 < 청자	아는 사람	선생님과 학생사이
6	화자 > 청자 화자 < 청자	모르는 사람	점원과 손님사이
7	화자 > 청자 화자 < 청자	가족	엄마와 딸 사이
8	나타나지 않음	모르는 사람	여자와 남자로 표시되는 사이, A와B로 표시되는 사이
9	나타나지 않음	아는 사람	특별한 관계가 제시되지 않았으나 이름을 알고 있는 사이

3.2 분석 내용

3.2.1 A 출판사 교과서의 대화 분석

A 출판사 중학교 1학년에서 3학년 과정까지 영어교과서의 대화내용을 분석한 결과 직접 질문의 요청 표현이 총 횟수 490회로 13가지 유형의 요청표현 대비 71%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다. 대화자 사이의 사회적 지위와 대화자들의 사회적 거리가 정확히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회적 지위는 알 수 없으나 상황을 제시하는 삽화와 대화자가 상대방의 이름을 부르는 경우에 대하여 아는 사람으로 간주하여, 대화자들의 사회적 지위는 나타나지 않고

대화자들은 서로 아는 사람으로 분류 되었고 3년 과정 중 총 횟수 246회 35%에 해당했다.(사회적 관계표 9번에 해당)

요청내지 부탁과 관련한 표현 익히기를 단원의 학습목표로 다루고 있는 경우는 1학년 2개 단원, 2학년 4개 단원, 3학년 3개 단원으로 총 9개 단원이다. 반드시 요청 및 부탁을 학습목표로 설정 하지 않았어도 대화 내용 중 포함되어 다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A 출판사의 교과서의 대화 내용을 각 학년 별로 살펴보도록 한다.

3.2.1.1 A 출판사 1학년 교과서의 대화 분석

1학년의 대화 내용 중 가장 많은 요청 표현은 직접 질문의 사용이다.(141회, 73%) 다음은 Look and Say1 의 그림을 보고 대화하는 학습 내용에서 직접 질문을 사용한 예이다.

상황: 여자와 남자가 대화를 나누고 있는 그림. 연령은 비슷해 보이나 두 사람이 친구인지 길을 가다 우연히 만난 사람들인지 어떤 제시도 없다. 대화자를 구분 짓는 방법은 단지 성별뿐이다.

여자: Where is the post office?

남자: It's next to the gas station.

(A 출판사 1학년, p.64)

이와 같은 짧은 단답식 대화는 문맥에 따른 적절한 대화 구조를 익히기 어렵고 단지 길을 묻고 위치를 말하기의 유형 학습에 중점을 두고 있다. 위의 대화자가 서로 잘 아는 사이라면 "Where is the post office?"와 같이 질

문하여도 무리가 없다. 그러나 낯선 사람에게 길 묻기를 요청하는 경우는 공손한 표현을 배려하지 않는 표현이다.

Look and Say^{1,2} 파트는 그림을 보고 상황에 맞는 말하기를 목표로 한다고 볼 때, “Look”은 인물과 상황에 대해 삽화를 통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그림으로 표현하기에 한계가 있다면, 설명이라도 보충 되어야 할 텐데 그렇지 못하여 학습자들은 대화자들이 각각의 상황에서 갖는 사회적 관계 및 지위의 중요성을 간과 할 수도 있다. 교과서는 계속하여 "Where is~?", "How can I get to~?"와 "It's~"의 구문을 반복적으로 말하기를 학습하도록 하고 있다. Read and Think에서 제시한 삽화를 보여주고 대화하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상황: 여자와 남자의 대화.

여자: Excuse me, where is Papa John's Bakery?

남자: Go straight one block and turn left. It's next to the post office.

(A 출판사 1학년, p.66)

앞서 배운 길 묻기 표현과 비교하면 "Excuse me"로 말하기를 시작하여 공손한 표현의 사용을 보여주나, 이전의 표현과 차이점을 알기위한 상황의 제시는 없다.

1학년 교과서의 대화 내용 중 두 번째로 많은 표현은 직접 요청으로 19회 10%를 차지한다. 가장 많은 횟수를 보인 직접 질문과는 무려 122회의 차이를 보여서 직접 질문의 표현에 얼마나 편중되어 있는지 알 수 있다. 직접 요청을 사용하는 대화예문은 다음과 같다.

상황: 엄마와 딸 미나의 대화. 엄마는 의자에 앉아있고 추워하고 있다.

Mom: Mina, close the window. I feel cold.

Mina: Mom, you don't feel well. What's the matter?

Mom: I have a cold.

Mina: Let's go to the doctor.

Mom: Don't worry. I'm fine. Just get me some orange juice, please. It's in the refrigerator.

Mina: Okay.

(A 출판사 1학년, p.103)

“close the window”는 엄마와 딸이라는 가까운 사이에서 요청할 수 있는 표현이다. 명령문의 형태인 직접 요청은 일반적으로 격의 없는 대화에서 사용됨으로 적절한 상황설정이라 할 수 있다. “Just get me some orange juice, please.”의 직접 요청은 just라는 완화 표지(hedge)를 사용하여 문맥 중 just 역할의 중요성과 가족간에도 상대방에게 요청할 때 배려심이 요구됨을 알 수 있게 한다. 이러한 완화 표지는 공손한 표현을 위한 부정적 책략의 하나로 청자를 강요하지 않고자 하는 욕구로부터 나온다(이 용경,2001).

이외에 허가, 희망, 비정형 등의 순서로 요청 표현이 사용되고 있으나, 직접 요청과 직접 질문의 표현 유형을 제외한 표현들은 162회 23%에 그쳐, 한 두가지의 표현 유형에 편중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1학년 교과서의 대화 예문이 사회적 지위와 거리를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 살펴보면, 우선 사회적 지위가 같은 친구나, 아는 사람과의 대화가 72회(38%)를 차지한다. 그리고 사회적 지위를 알 수 없는 경우가 74회(39%)나

된다. 각각의 경우를 대화 예문을 통해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사회적 지위가 같은 친구와의 대화 예문이다.

제시 : **짜**과 함께 다음 메뉴 중에서 먹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묻고 대답해 봅시다.

A: What do you want?

B: I want some gimbap. What about you?

A: I want a hamburger.

(A 출판사 1학년, p.78)

두 번째로 사회적 지위는 알 수 없고, 이름을 알고 있는 사이 이므로 아는 사람과의 대화로 추정되는 대화 예문은 다음과 같다.

여자: What's the matter with you, Minsu?

You don't look well.

남자: I feel cold and I have a headache.

여자: Let's see a doctor.

남자: Okay.

(A 출판사 1학년, p.105)

세 번째로 사회적 지위 및 거리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는 경우이다.

남자: Excuse me, but I'm looking for the bank.

여자: Go straight and turn right at the library. It's next to the

park.

남자: Thank you very much.

여자: You're welcome.

(A 출판사 1학년, p.72)

위의 예들이 보여주듯 A 출판사의 표현을 익히고자 하는 말하기, 듣기의 대화들은 대화자들의 사회적 지위와 거리에 대한 설명 또는 정보가 없는 경우가 많다. 오히려 대화 내용을 끝까지 듣거나 읽음으로써 대화자들이 서로 친구 관계인지, 점원과의 대화인지, 낯선 사람인지, 아는 사이지만 친구라고 확신할 수는 없는 사이인지를 추측하도록 한다. 사회적 지위 및 거리에 대한 정확한 설정 없이 개개의 학습자들의 추측에 의존한다면, 상황 및 상대방에 따른 적절한 공손 표현의 학습에 어려움과 혼란이 생길 수 있다. 예를 들어, "Excuse me, but I'm looking for the bank." 와 같은 표현은 친구나 아는 사이에서는 어색한 표현이다. 낯선 사람이나 격식을 갖추어야 하는 순위 사람과의 대화 표현에서 적절하다.

구체적인 사회적 관계를 제시하여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는 대화는 아래와 같다.

제시: 판매원의 질문에 대한 손님의 대답을 다음 보기에서 찾아 번호를 써 봅시다.

Storekeeper: May I help you?

Mina: Yes, I'm looking for a red shirt.

Storekeeper: I'm sorry, but we don't have it right now. How about this?

Mina: It looks OK. How much is it?

Storekeeper: It's 30 dollars.

Mina: OK. I'll take it.

(A 출판사 1학년, p.212)

판매원과 손님이라는 사회적 관계는 미나가, 사고자 하는 옷을 보고 싶어 하는 요청 상황에도 불구하고 (I'm looking for a red shirt.) 판매원의 표현을 미나보다 더 공손하게 하는 원인을 제공한다. (I'm sorry, but we don't have it right now. How about this?)

이상과 같이 A 출판사 1학년 (A 1로 표시)의 분석 결과를 표를 이용하여 요약하면 표4, 표5와 같다.

<표 4> Gibbs의 요청 표현에 따른 교과서 분석 (A 1)

단위: 사용횟수(%)

유형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합계
A 1	9(5)	4(2)	1(0)	14(7)	141(73)	0(0)	0(0)	19(10)	0(0)	0(0)	5(3)	0(0)	0(0)	193

<표 5> 사회적 관계에 의한 교과서 분석(A 1)

단위: 사용횟수(%)

유형	1	2	3	4	5	6	7	8	9	합계
A 1	36(19)	5(3)	0(0)	36(19)	21(1)	28(15)	12(6)	32(17)	42(22)	193

3.2.1.2 A 출판사 2학년 교과서 대화 분석

A 출판사의 2학년 교과서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1학년의 가장 많은 표현이었던 직접 질문이 116회 66% 비중으로 여전히 가장 많고 두 번째로 많은

표현은 허가, 위임이 동일하게 12회 7%의 빈도를 보였다. 그 다음으로 가능, 진술, 직접요청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현 횟수는 많지 않으나 1학년의 표현보다 Gibbs의 13가지 요청 유형을 비교적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다. 특히, 1학년에서 거의 사용하지 않은 진술 표현과 한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의무 표현도 대화에서 나타나고 있다. Gibbs의 요청 표현 유형에서 모국어 사용자들이 세 번째로 자주 사용한다고 밝혀진 진술 표현의 사용이 늘었다는 점이 눈에 띄인다. 다음 대화의 “Everyone in my class has it.”이라는 진술 표현은 세상의 일반적인 사실을 말하고 정당성을 부각시켜 대화를 듣는 상대방에게 강한 요청을 드러내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A: Mom, can I buy this backpack?

B: No, you can't.

A: Please, Mom. Everyone in my class has it.

(A 출판사 2학년, p.151)

직접 요청과 희망, 비정형의 표현은 감소하였다. 2학년의 대화 내용은 표현 자체의 공손성 보다는 상대방과 대화를 어떻게 주고받는지 보여줌으로써, 공손 표현을 학습하도록 하는 특징을 보여준다. 아래 대화의 네 가지 예문들은 A 출판사 2학년의 교과서가 보여주고 있는 자연스럽게 공손한 표현으로 대화를 전개해 나가는 방법들이다.

첫 번째 방법은 금지나 거절시 이유를 밝히는 표현 방법이다.

A: Can I park there?

B: No, you must not park there. It's for handicapped person.

(A 출판사 2학년, p.30)

위의 예문에서 B는 주차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이것은 B가 A의 체면을 침해하기를 원하지 않으면서 일반적인 사회 규칙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공손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 예문도 상대방의 요청에 거절할 경우, 상황적으로 어쩔 수 없는 거절이유를 밝혀 요청하는 화자의 체면을 보호해 주려는 의도가 있으므로 공손하다고 할 수 있는 표현이다.

Would you wake me up at 6:30?

I'm sorry I can't. I won't be home.

(A 출판사 2학년, p.101)

두 번째 방법은 완화 표지“please”를 사용하여, 공손 표현이 될 수 있는 대화를 제시하는 경우이다.

Maxwell ran to his secretary's desk. She looked at him with a smile. "Miss Leslie, would you marry me? Answer me now, please. I have to go back to my desk right away. My phone is ringing." At first, the secretary looked surprised. She looked at him and smiled.

(A 출판사 2학년, p.128)

이렇듯 완화 표지(hedge)는 청자를 강요하지 않고자 하는 욕구로부터 나온 책략으로 화행력을 완화 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세 번째 방법은 다음 예문과 같이 요청 하는 사람이 표현하고자 하는 문

장(target sentence -Gibbs, 1981)을 대화 도중 언제, 어떻게 사용하여 자연스러운 대화를 이룰 수 있는가와 관련한 것이다.

Mina: Hello. Can I speak to David, please?

David: This is he. Who's calling?

Mina: This is Mina. We met at Paul's birthday party. Do you remember?

David: Oh, yes. How have you been?

Mina: Pretty good. You know. this Saturday is Chuseok. It's like thanksgiving in America. Can you come to my house and have dinner with my family?

David: I'd love to. What time do I have to be there?

Mina: Around 6.p. m.

David: Okay. I'll be there.

Mina: Great. Bye.

(A 출판사 2학년, p.260)

미나가 전화하여 말하고자 한 내용은 “Can you come to my house and have dinner with my family?” 이고, 이전의 문장들은 친근한 분위기를 조성하여 자신의 요청이 받아들여지기 위한 대화들이다. 이렇듯 점차적으로 대화자간의 거리를 좁혀나가는 대화는 좀 더 공손하게 느껴진다.

2학년 교과서의 대화 예문이 사회적 지위와 거리를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 살펴보면, 사회적 지위를 알 수 없는 경우가 124회 71%로 1학년 교과서의 74회 39%보다 증가하였다. 다음은 사회적 지위와 사회적 관계를 모두

알 수 없는 경우의 대화이다.

Man: Can I use your toothbrush?

Woman: No, you can't

(A 출판사 2학년, p.97)

대화자를 나타낼 때 Man과 Woman으로 보여주어 대화자에 대한 정보제공에 인색하여 사회적 관계에 대해 알 수 있는 사항이 전혀 없다.

다음으로 많이 나타난 사회적 지위 및 거리는 아래의 대화 예문과 같이 사회적 지위가 같은 친구와의 대화이다.

상황: 알렉스의 집에 방문한 인규는 알렉스가 컴퓨터 수리하는 것을 도와 주려하고 있다.

Alex: Ingyu, I have a problem with my computer.

Ingyu: What is it?

Alex: Drive A in my computer is not working.

Ingyu: Don't worry, Alex. I can fix it for you.

Alex: Are you sure?

Ingyu: I know computers. Don't worry.

위의 대화의 등장인물들과 같이 2학년 교과서의 등장인물들은 1학년 교과서의 등장인물들과 동일한 미나, 인규, 알렉스, 폴등이다. 이들이 친구 관계로 나타나고 대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때 상급 학년으로 올라갈수록 더욱 친밀한 사이가 되고 격의 없는 대화가 이루어지리라 가정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A 출판사 2학년 (A 2로 표시)의 분석 결과를 표를 이용하여 요약하면 표6, 표7과 같다.

<표 6> Gibbs의 요청 표현에 따른 교과서 분석 (A 2)

단위: 사용횟수(%)

유형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합계
A 2	0(0)	9(5)	8(5)	12(7)	116(66)	0(0)	0(0)	7(4)	0(0)	12(7)	3(2)	0(0)	7(4)	175

<표 7> 사회적 관계에 의한 교과서 분석(A 2)

단위: 사용횟수(%)

유형	1	2	3	4	5	6	7	8	9	합계
A 2	0(0)	0(0)	0(0)	27(15)	8(5)	3(2)	12(7)	30(17)	94(5)	175

3.2.1.3 A 출판사 3학년 교과서 대화 분석

A 출판사의 3학년 교과서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직접 질문의 요청 표현이 233회 72%의 빈도로 사용하여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인다. 직접 질문에 편중되어 다른 요청 표현들은 92회 28%밖에 보여 지고 있지 않다. 다른 학년에서 보여 지지 않던 내포형의 요청 표현이 다음과 같이 사용되었다.

제시: 짝과 함께 주어진 상황에서 허락을 구하는 대화를 나누어 봅시다.

A: Is it OK if I use your cell phone?

B: Sure. (또는 I'm afraid you can't. It's broken.)

(A 출판사 3학년, p.81)

Is it OK if~ ?의 요청 표현에 대하여, “허락을 구하는 표현으로, Can I ~ ?나 May I~ ? 또는 Do you mind if~ ?로 바꾸어 쓸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A 출판사 3학년, p.79) 다양한 표현을 익히는 방법으로 도움이 될 수 있으나, 대화로 제시하지 않은 아쉬움이 있다.

다음의 두 대화 예문처럼 가능한 요청 표현이 1,2 학년 교과서와 달리 3학년 대화 내용에서 30회(9%)나 사용되고 있다.

A: How do you like the new history teacher?

B: I like a lot.

A: Can you tell me why you like him?

B: I think he is funny.

(A 출판사 3학년, p.101)

제시: Look at the pictures and practice the dialog with your partner.

A: Can you do me a favor?

B: What is it?

A: Can you give me a ride to school?

B: Sure.(또는 I'm sorry, I can't. My car is in the repair shop.)

(A 출판사 3학년, p.168)

3학년 Look and Say1,2 파트의 대화예문이 1,2 학년의 대화 예문보다 길어

저서 좀 더 자연스러운 대화를 익히도록 하고 있다. 상황을 보여주기 위한 삽화는 대화 예문에서 생략되어졌다. 다음은 짝과 함께 주말 약속을 정해 보자는 상황을 지문으로 제시하고, 대화를 주고받는 말 순서 교대가 A-B-A-B-A-B-A와 같은 예문으로 보여주고 있는 경우이다.

A: Would you like to go to the movies this Saturday?

B: That sounds great. What time shall we make it?

A: How about three?

B: Okay. Where shall we meet?

A: Let's meet in front of the ticket office.

B: Why don't we meet at another place? How about the bus stop?

A: That's no problem.

(A 출판사 3학년, p.189)

1, 2학년에서 제시되었던 다음의 두 가지 대화 예문들과 비교하여 볼 수 있다. 대화를 주고받는 말 순서 교대는 A-B이다.

제시: 짝과 함께 그림 속의 각 상점에서 판매원과 손님이 되어 대화를 나눠 봅시다.

A: May I help you?

B: Yes, I'm looking for a coat.

(A 출판사 1학년, p.196)

제시: 짝과 함께 주말에 하고 싶은 일을 써 본 후, 아래와 같이 대화를 나눠 봅시다.

A: Would you like to play tennis with me on Saturday?

B: Yes, I'd love to.(또는 I'd love to, but I have to visit my grandfather.)

(A 출판사 2학년, p.85)

1,2학년의 말 순서 교대 A-B로 이루어지는 대화문이 3학년에서는 A-B-A-B-A-B-A의 말 순서 교대를 보여주어 대화문의 길이가 길어진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대화문의 길이는 대화의 기본을 이루는 말 순서 교대(turn-taking)의 횟수에 의해 결정된다.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올바른 순서 교대의 규칙을 인식하는 일은 누가, 언제 이야기하는 것을 알게 되고 대화를 효과적으로 진행하는 데 중요한 요소이다. 김 웅용(2003)에 따르면 대화를 통하여 학습자들은 한 화자의 발화에 특정한 종류의 반응을 만들어 내는 인접쌍을 배울 수 있으며, 또한 바람직하지 않은 반응(제안에 대한 거절, 평가에 대한 불일치, 주장에 대한 반대)은 어떤 방식으로 표시가 이루어져야 대화가 자연스럽게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고 하였다. 예를 들면, 약간의 휴지(pause)나 “well”, “You see~ ” 등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라고 언급 하였다. 대화문의 길이가 중요한 이유는, 대화문은 인접쌍으로 이루어지며 따라서 대화문의 길이가 길어지면 정형화된 인접쌍과 더불어 다양한 인접쌍을 익혀 어떤 상황에서도 적절한 대화를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3학년 교과서의 대화 예문이 사회적 지위와 거리를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 살펴보면, 사회적 지위를 알 수 없는 경우가 185회 57%에 해당하여 여전히, 대화 내용에서 사회적 지위에 대한 제시가 부족하다. 이외에 친구와의

대화가 103회 32%, 가족간의 대화가 28회 9% 순이다. Look and Say1,2 파트의 삽화가 생략되어 사회적 관계 및 상황을 추측하기는 더 힘들어졌다. 그러나 다음의 예와 같이 대화 상대방에 따라 다른 표현을 사용한다는 설명으로 상황과 사회적 관계에 따라 적절하게 표현할 것을 제시하기도 한다.

Mini Dictionary

I advise you to talk to your teachers.: 충고할 때 쓰는 표현이다. 충고의 표현 중에서 친한 사람에게는 Why don't you...?가 적당하고, You'd better...는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충고할 때 많이 쓰며, I advise you to...는 격식을 차려야 하는 사람에게 쓸 수 있는 표현이다.

(A 출판사 3학년, p.33)

위와 같이 설명으로 제시한 다음, 2단원에서 격식을 차리는 “I advise~”의 표현을 익히도록 하였고, 3단원에서 좀더 친한 관계에서 사용하는 “Why don't you~”의 표현을 익히도록 하고 있어서 단원 간에 유기적인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이 A 출판사 3학년 (A 3으로 표시)의 분석 결과를 표를 이용하여

요약하면 표8, 표9와 같다.

<표 8> Gibbs의 요청 표현에 따른 교과서 분석 (A 3)

단위: 사용횟수(%)

유형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합계
A 3	2(1)	30(9)	1(0)	1(0)	233(72)	0(0)	0(0)	14(4)	0(0)	6(2)	31(10)	6(2)	1(0)	325

<표 9> 사회적 관계에 의한 교과서 분석(A 3)

단위: 사용횟수(%)

유형	1	2	3	4	5	6	7	8	9	합계
A 3	7(2)	0(0)	0(0)	103(32)	0(0)	21(1)	28(9)	75(23)	110(34)	325

지금까지 A 출판사의 1학년부터 3학년까지의 교과서를 살펴본 결과, A 출판사의 교과서 대화 내용에서 사용된 요청 유형의 분포는 Gibbs의 요청 표현 분포와 현저히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교과서는 직접 질문의 유형을 3년 과정 총 490회 71% 사용으로 각 학년 내내 가장 높은 빈도를 보여준다. 특히 모국어 사용자들이 13가지 유형 중 6번째와 7번째로 많이 사용하는 이름, 소유, 그리고 9번째로 많이 사용하는 부과의 요청 표현은 단 한번도 사용하지 않았으며 학년이 올라갈수록 아주 드물게 다른 요청 유형의 표현이 보이기는 하나, 요청 유형의 분포가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직접 질문의 유형에 지속적으로 편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Gibbs가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언어 사용자들이 가장 빈번히 사용한다고 밝힌 희망 및 가능, 진술의 요청 표현의 사용과는 매우 다른 현상으로, A 출판사가 보여주는 대화 표현이 원어민의 그것과 동떨어진 것이 아닌지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사회적 지위와 거리를 모두 알 수 없는 경우가 총 20%에 도달하고 사회적 지위를 알 수 없는 경우는 55%이다. 정확히 제시하는 경우는 가족 및 직업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경우와 친구뿐이었다. 삽화를 통하여 상황 묘사를 의도 하였으나, 대화자간의 관계가 어떠한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삽화를 보는 사람마다 다른 추측을 낳을 수 있어서 좀 더 자세한 상황 설명을 서두에 나타낼 필요가 있다. 일상 대화에서 가족과

친구, 점원등과의 대화가 전부는 아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상황과 여러 가지 사회적 지위와 사회적 관계가 공손한 표현에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볼 때, 적절한 공손 표현을 학습하기 위해 사회적 관계에 좀 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A 출판사의 대화 내용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내용이 길게 제시되고 있다. 이는 요청하는 자(화자)의 표현이 좀 더 공손한 표현이 되도록 어느 정도 대화가 진행된 후 요청하는 목표 문장을 말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처음부터 요청 사항을 꺼내놓기 보다는 요청이 필요하게 된 배경 설명과 상대방의 기분을 먼저 살피는 대화로 시작하는 것을 더 공손하다고 느낀다. 또한, A 출판사의 대화 내용 중 청자가 거절할 때에는 거절하는 이유를 밝히고 있어서 공손한 표현이 되고 있다.

A 출판사 교과서의 대화 분석 결과를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종합하면 표 10, 표11과 같다.

<표 10> Gibbs의 요청 표현의 유형에 따른 교과서 분석(A 출판사)

유형	표현 예 (학년별)	1학년 (193)	2학년 (175)	3학년 (325)	총계 (692)
1. 희망	1.I want some brownies.				
	2.-	9(5%)	0(0%)	2(1%)	11(2%)
	3.Mom, I really want these pants.				
2. 가능	1.Can you come to my house?				
	2.Can you say that again?	4(2%)	9(5%)	30(9%)	43(6%)
	3.Can you tell me why don't like~?				
3. 진술	1.The food is over there.				
	2.I have a problem with my computer.	1(0%)	8(5%)	1(0%)	10(2%)
	3.You didn't wear seat belt, did you?				
4. 허가	1.Can I take your backpack?				
	2.Can I park here?	14(7%)	12(7%)	1(0%)	27(4%)
	3.Can I ask why she doesn't want you?				
5. 직접질문	1.Where is the post office?				
	2.What happened in Japan?	141(73%)	116(66%)	233(72%)	490(71%)
	3.What's wrong with you?				
6. 이름	1.-	0(0%)	0(0%)	0(0%)	0(0%)

	2.-				
	3.-				
7. 소유	1.-	0(0%)	0(0%)	0(0%)	0(0%)
	2.-				
	3.-				
8. 직접요청	1.Wash your hands	19(10%)	7(4%)	14(4%)	40(6%)
	2.Help yourself, Paul.				
	3.Come to my house this Wednesday.				
9. 부과	1.-	0(0%)	0(0%)	0(0%)	0(0%)
	2.-				
	3.-				
10. 위임	1.-	0(0%)	12(7%)	6(2%)	18(3%)
	2.Would you like to join me?				
	3.Would you wake me up at 6:30?				
11. 비정형	1.How about Sunday?	5(3%)	3(2%)	31(10%)	39(6%)
	2.How about parking over there?				
	3.Why don't you join me for~?				
12. 내포	1.-	0(0%)	0(0%)	6(2%)	6(1%)
	2.-				
	3.Is it OK if I go home early today?				
13. 의무	1.-	0(0%)	7(4%)	1(0%)	8(1%)
	2.You must not park here.				
	3.I think you should take him to a vet.				

<표 11> 사회적 관계에 의한 교과서 분석(A 출판사)

	사회적 지위	사회적 거리	1학년 (193)	2학년 (175)	3학년 (325)	총계 (692)
1	화자 = 청자	아는 사람	36(19%)	0(0%)	7(2%)	43(6%)
2	화자 = 청자	모르는 사람	5(3%)	0(0%)	0(0%)	5(1%)
3	화자 = 청자	가족	0(0%)	0(0%)	0(0%)	0(0%)
4	화자 = 청자	친구	36(19%)	27(15%)	103(32%)	166(24%)
5	화자 > 청자 화자 < 청자	아는 사람	2(1%)	8(5%)	0(0%)	10(1%)
6	화자 > 청자 화자 < 청자	모르는 사람	28(15%)	3(2%)	2(1%)	33(5%)
7	화자 > 청자 화자 < 청자	가족	12(6%)	12(7%)	28(9%)	52(8%)
8	나타나지 않음	모르는 사람	32(17%)	30(17%)	75(23%)	137(20%)
9	나타나지 않음	아는 사람	42(22%)	94(5%)	110(34%)	246(35%)

3.2.2 B 출판사 교과서의 대화 분석

B 출판사 중학교 1학년에서 3학년 과정까지 영어교과서의 대화내용을 분석한 결과 직접질문의 표현으로 요청하는 경우가 총 횟수 813회로 13가지 유형의 요청 표현 대비 54%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다. 사회적 지위를 알 수 없는 경우가 총 75%를 나타내어 4종의 출판사중 가장 높은 빈도수를 보였다. 대화 예문을 보고 익혀 학습자들이 직접 대화를 연습하도록 하는 Let's talk 1,2 파트와 Dialog 파트는 대화자 각각의 이름을 명시하여, A 출판사의 대화자를 A와 B로 주어진 예문보다 바람직하다고 보이긴 하나, 어떠한 관계인지

는 알 수 없다. 그러므로 사회적 지위는 알 수 없고 서로 아는 사이인 사회적 관계표 9번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사회적 지위는 알 수 없고 서로 아는 사이인 경우는 3년 과정 중 총811회 54%나 되어 대화자 사이의 관계가 4종 교과서중 가장 편중되어 있다.

요청과 관련한 표현 익히기를 단원의 학습목표로 다루고 있는 것은 1학년 4개 단원, 2학년 2개 단원, 3학년 4개 단원으로 총 10개 단원이다. B 출판사는 A 출판사가 단답형의 대화 지문에서 학년이 올라갈수록 긴 대화 지문을 제시한 것과는 다르게 다음의 예문처럼 1학년부터 비교적 긴 대화 예문을 제시 하고 있어서 자연스런 대화 표현을 익히기에 더 적합하다고 보인다.

Insu: Excuse me. Are you Kang Yumi?

Yumi: Yes. Can I help you?

Insu: Yes. Let me introduce myself first. My name is Kim Insu.
I'm a new student here.

Yumi: Uh-huh.

Insu: I have a question about your music club.

Yumi: OK.

Insu: May I join the club?

Yumi: Of course. Everyone is welcome.

Insu: That's great! Thanks.

(B 출판사 1학년, p.12)

A 출판사가 1학년에서 보여준 대화문은 A-B로 구성된 반면, B 출판사는 A-B-A-B-A-B-A-B-A로 구성된 긴 대화문을 보여준다. 이를 통해 학습자들

은 적절히 응답하는 방법을 배우고 대화를 자연스럽게 이끌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B 출판사의 교과서의 대화 내용을 각 학년 별로 살펴보도록 한다.

3.2.1.1 B 출판사 1학년 교과서의 대화 분석

B 출판사의 1학년 교과서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A 출판사의 약속하기 대
화가 3학년 과정에서 제시되어 학습하는 것에 비교해 B 출판사는 1학년 과
정에 소개 되고 있다.

1학년 요청 표현에서 가장 자주 사용되는 표현은 A 교과서와 마찬가지로
직접 질문의 표현이다.(257회 58%) 그 다음으로 자주 사용되는 표현은, A
교과서의 두 번째로 많이 사용된 직접 요청 표현과는 다르게 아래와 같이
허가를 나타내는 표현이다.(57회 13%)

*제시: 다음은 민호와 Linda의 전화 대화입니다. 서로 대화를 나누어 봅시
다.*

Minho: Hello! May I speak to Linda?

Linda: This is Linda speaking. Who is calling, please?

Minho: Hi, this is Minho. Tomorrow is Yumi's birthday.

Linda: Oh, that's right. Did she invite you, too?

Minho: Yes. She sent me an invitation card.

Linda: Did you buy a present for her?

Minho: Not yet. I'll give her notebooks.

Linda: That's a good idea.

Minho: I'm going to the store right now. Will you come with me?

Linda: Not this time. I have piano lessons.

Minho: OK. Bye.

(B 출판사 1학년, p.154)

위의 대화는 허가의 표현을 사용하는 전화 대화 내용이면서 자연스러운 대화가 이루어지도록 대화자들이 서로 어떻게 협조하는지 알려 주고 있다. 완화 표지 "please"의 사용과 Linda의 "Oh"와 같이 상대방에 대한 응답은 대화에 적극적인 자세가 대화를 부드럽게 이끄는 방법이 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민호의 "I'll give her notebooks." 와 Linda가 거절 표현에 이어 "I have piano lessons" 와 같이 청자에게 성실한 정보 제공의 자세는 화자에게 공손한 표현으로 느껴지게 한다.

다음은 Gibbs의 요청 표현 중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낸 희망 표현의 대화 내용이다. B 출판사 1학년 내용에서는 A 출판사의 9회, 5%보다 높은 29회 7%를 나타내고 있다.

제시: 다음은 민호와 민지가 아빠와 함께 점심을 먹으러 가면서 나누는 대화입니다. 서로 대화를 나누어 봅시다.

Dad: What do you want for lunch?

Minji: I'd like to have a beef sandwich.

Minho: I want some chicken wings.

Minji: Then let's go to the Gympo Restaurant.

Minho: Great. They have the best wings in town.

Dad: OK. How do we get there from here?

Minji: Go straight for three blocks. Then turn right. It's next to the post office.

Dad: All right. Let's go.

(B 출판사 1학년, p.112)

Gibbs의 요청 유형중 상위 빈도를 나타내는 진술 표현은 B 출판사 1학년의 경우 다음 예문과 같이 단 2회만 사용되어 A 출판사와 마찬가지로 Gibbs의 요청 유형 빈도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상황: 우체국의 접수창구에서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데 어떤 사람이 줄을 서지 않고 먼저 접수창구 앞으로 오는 그림.

직원: You should wait in line.

남자: Excuse me?

직원: There's a line over there.

(B 출판사 1학년, p.227)

A: You are late again.

B: I'm sorry, Mrs. Kim.

A: You must come to school by eight.

B: OK. I won't be late again.

(B 출판사 1학년, p.170)

위의 세 대화문은 희망과 진술 표현의 요청 유형이다. “I want some chicken wings.”, “There's a line over there.”, “You are late again.”과

같은 표현은 질문의 형태를 취하지 않고 서술문의 형태로 요청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간접 요청의 예이다. Gibbs의 분포도에 따르면, 희망과 진술의 두 가지 유형이 총 32%를 나타내나, A와 B 교과서 모두 낮은 분포도를 나타내어 사용빈도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다음은 요청하기를 학습 목표로 제시한 5단원의 대화 예문이다.

Ms. White: Mira. Can you help me?

Mira: Sure, Ms. White.

Ms. White: These things are very heavy. Can you open the box,
please?

Mira: OK.

(B 출판사 1학년, p. 89)

위의 예는 손위 사람과 손아래 사람이라는 사회적 지위와 아는 사람 관계라는 사회적 관계를 갖는 대화자들의 예문이다. 이와 다르게 엄마와 딸이라는 사회적 거리를 갖는 대화자들의 요청 표현은 위의 가능한 요청 표현보다 직접 요청의 표현을 사용하여 보여 주고 있다. 이는 좀더 친밀한 관계에서의 대화를 사회적 관계에 따라 적절하게 제시된 것으로 보인다.

Mom: Minji, help me, please.

Minji: Sure, Mom, What is it?

Mom: Wash the dishes for me.

Minji: OK.

(B 출판사 1학년, p.87)

길을 알고자 요청하는 Listen 파트에서 들려주는 다음 예문과 같은 대화 내용은 사회적 관계에 대해 전혀 정보가 주어지지 않고, 단지 길 묻기의 표현을 유형처럼 보여주고 있다. 게다가 "there", "here"가 어디를 가리키는 지 문맥을 통해서 알 수 없는 부적절한 대화 예문이다.

제시: 다음 대화를 듣고, 여자가 가려고 하는 곳에 표시 해 봅시다.

삽화: 거리 약도를 나타낸 그림

A: How do I get there from here?

B: Go straight. And turn right. It's on your right. It's next to the bookstore.

A: Thank you.

B: You're welcome.

(B 출판사 1학년, p.121)

1학년 교과서의 대화 예문이 사회적 지위와 거리를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 살펴보면, 대화자들의 사회적 지위를 알 수 없는 경우가 82% 이고, 사회적 지위가 같은 아는 사람 또는 모르는 사람과의 대화는 한 번도 제시되지 않아서 대화자들의 다양한 사회적 관계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다음은 16% 빈도를 나타낸 사회적 지위를 알 수 없고 서로 모르는 관계에 있는 대화자들의 대화이다.

Woman: Can I use this paper?

Man: No, I'm afraid you can't. I wrote something on it.

Woman: That's fine with me. I can write on the other side.

Man: How about using new paper? That's better.

Woman: I know, but I just don't want to make more trash. We
cut down millions of trees every year.

(B 출판사 1학년, p.214)

다음은 사회적 지위가 서로 다른 모르는 사람과의 대화 예문이다.

Woman: May I take your order?

Dad: Yes. I'd like to have a steak.

Woman: Do you want a salad?

Dad: Yes, I do.

Woman: Anything for dessert?

Dad: I'd like a piece of cheese cake. What will you have, Tom?

Tom: I'd like to have a hamburger, French fries and orange juice.

Woman: Anything for dessert?

Tom: Ice cream, please.

(B 출판사 1학년, p.255)

위의 대화 예문에서 사회적 지위와 사회적 관계를 알 수 없는 경우의 대화자를 Woman과 Man 으로 제시한 것은 타당하다고 보이나, Woman이라는 표현보다는 직업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제시하는 것이 대화의 상황을 더 정확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B 출판사의 대화 내용에는 다른 출판사보다 Man과 Woman으로 표시하는 경우가 많다. Man과 Woman이라는 명칭은 개인의 정보를 전혀 알 수 없고(사회적 지위, 직업, 나이 등) 서

로 전혀 관계가 없는 낯선 사람이라는 느낌을 준다. 심지어 다음의 예문들과 같이 이미 대화를 통해 직업을 알 수 있는 경우에 Man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매우 부적절 하다고 판단된다. A 출판사의 경우는 Storekeeper로 명시하고 있다.(본 논문의 p.17 예문 참조)

Man: Can I help you?

Linda: Yes, I'm looking for a pair of sneakers.

Man: How about these?

Linda: Oh, they are black. I want to buy white ones.

(B 출판사 1학년, p.172)

Man: May I take your order?

Sujin: I'd like to have a hamburger and milk.

Man: That'll be 2,900 won, please.

Sujin: Here you are.

(B 출판사 1학년, p.110)

A 출판사의 Look and Say^{1,2} 파트의 대화가 대화자를 A, B로 제시한 것에 비해 B 출판사의 Let's talk^{1,2} 파트의 대화자가 인명으로 제시되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Dialog 파트의 서두에 대화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어서 상황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이상과 같이 B 출판사 1학년 (B 1로 표시)의 분석 결과를 표를 이용하여 요약하면 표12, 표13과 같다.

<표 12> Gibbs의 요청 표현에 따른 교과서 분석 (B 1)

단위: 사용횟수(%)

유형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합계
B 1	29(7)	18(4)	2(0)	57(13)	257(58)	0(0)	0(0)	55(12)	0(0)	7(2)	19(4)	0(0)	1(0)	445

<표 13> 사회적 관계에 의한 교과서 분석(B 1)

단위: 사용횟수(%)

유형	1	2	3	4	5	6	7	8	9	합계
B 1	0(0)	0(0)	1(0)	2(0)	13(3)	32(7)	34(8)	69(16)	294(66)	445

3.2.2.2 B 출판사 2학년 교과서 대화 분석

B 출판사의 2학년 교과서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직접 질문의 표현이 290회 55%로 여전히 제일 많다. 그 다음으로 직접 요청, 비정형과 가능 등의 요청 표현 순서로 많이 사용되었다.

가능의 요청 표현이 1학년의 대화 예문에서 보여 지는 횟수보다 증가 하였으나, Gibbs의 요청 표현 분포 상위에 있는 희망, 진술은 오히려 줄었다. 아래의 두 예문은 가능의 요청 표현을 1학년에서 “Can you~ ?”로 표현하고 2학년에서 “Could you~ ?”로 표현하여 좀 더 공손한 표현을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Mira: Shall we go to a movie this evening, Insu?

Insu: Sounds good. Where shall we meet, Mira?

Mira: Can you come to my house by six?

Insu: No, I can't. Let's meet at the bus stop near Joe's Theater.

(B 출판사 1학년, p.61)

Mr. Brown: Could you give me a hand?

Mira: Sure, What is it?

Mr. Brown: Could you carry the bag for me?

Mira: All right.

(B 출판사 2학년, p.214)

다음의 예문은 “May I take your order?”를 이용한 요청 표현을 대화로 보여주고 있다. 1학년보다 2학년의 대화 내용을 비교해 보면, 2학년의 대화 내용이 길어 졌고 대화 중간에 자연스럽게 요청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제시는 반복 학습과 자연스러운 대화를 익히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Man: May I take your order?

Sujin: I'd like to have a hamburger and milk.

Man: That'll be 2,900 won, please.

Sujin: Here you are.

(B 출판사 1학년, p.110)

Ms White: Oh, they're delicious! I had them last time.

Would you like to try some?

Minsu: No, thanks. They sound funny.

Waiter: May I take your order?

Ms White: I'll have the fried green tomatoes, please.

Waiter: Fried green tomatoes. And you, sir?

Minsu: I think I'll have the ant soup.

Ms white: Ant soup? Now that really sounds funny.

(B 출판사 2학년, p.106)

의무 표현으로 요청하는 대화 구문은 1학년의 1회에서 2학년의 5회로 약간 늘었으나 유의한 수준은 아니다.

다음은 "blue"의 중의적 의미를 주제로 그림과 함께 대화로 제시하였다. 학습자들에게 단어 자체의 의미 파악보다 대화의 문맥을 통하여 상대방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준다. 대화 학습의 좋은 예가 된다.

Bill: I feel blue.

Hodong: You are cold, aren't you? Do you want some hot tea?

Bill: No, I feel blue now. Don't say anything to me.

Hodong: What? What do you mean you are 'blue'????

(B 출판사 2학년, p.209)

2학년 교과서의 대화 예문이 사회적 지위와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 살펴보면, 사회적 지위를 알 수 없는 경우가 374회 71%에 해당한다. 특히 사회적 관계표 9번(사회적 지위를 알 수 없고 아는 사람과의 관계)의 경우가 258회 49%로 거의 절반을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 가족과의 대화와 선

생님등과의 대화가 많이 나타났다. 이는 다양한 사회적 관계에 있는 대화자들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학년 교과서의 대화에 나타나는 등장인물들은 1학년 교과서와 동일하나, 특별한 관계의 심화를 보여주고 있지는 않다. 학습자들의 말하기 학습에 중점을 두고 있는 Dialog의 상황 제시는 A 출판사보다 비교적 자세하고 명확하다. 다음 예문을 살펴보자.

The following is a dialog among Minho, Minji and their mom. They are talking about house cleaning. Let's read and practice.

Mom: Minho, can you clean the table?

Minho: No, I can't. I'm busy now.

..... 생략

(B 출판사 2학년, p.34)

민호, 민지와 엄마 사이의 대화라고 명시하여 대화자간의 사회적 지위와 거리를 알려 주고 있다. 또, 대화자들이 청소와 관련한 대화를 하고 있다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다음의 예문도 사회적 관계와 상황을 제시하는 글이다.

The following is a dialog between Bob and his mom. They are talking about a recipe for potato salad. Let's read and practice.

Bob: Would you like some salad, Mom?

Mom: Yes, please. It's so delicious. How do you make it?

..... 생략

(B 출판사 2학년, p.94)

밥과 엄마사이의 대화라는 것을 제시하여 대화자간의 사회적 관계를 알려 준다. 또, 포테이토 샐러드를 만드는 요리법에 관한 화제로 대화 하고 있다는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설명은 A 출판사의 대화 예문과 뚜렷한 차이점이며 B 출판사가 갖는 장점으로 생각된다.

화자와 청자와의 사회적 지위가 다르고, 서로 아는 사람에 해당하는 사회적 관계(선생님 등)를 갖는 대화와, 사회적 지위가 다른 가족과의 대화(엄마나 아빠 등)가 20%에 해당됨에 따라 이러한 대화에서 자주 사용되어지는 직접 요청의 표현도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과 같이 B 출판사 2학년 (B 2로 표시)의 분석 결과를 표를 이용하여 요약하면 표14, 표15와 같다.

<표 14> Gibbs의 요청 표현에 따른 교과서 분석 (B 2)

단위: 사용횟수(%)

유형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합계
B 2	16(3)	49(9)	1(0)	8(2)	290(55)	0(0)	0(0)	91(17)	0(0)	14(3)	49(9)	0(0)	5(1)	523

<표 15> 사회적 관계에 의한 교과서 분석(B 2)

단위: 사용횟수(%)

유형	1	2	3	4	5	6	7	8	9	합계
B 2	0(0)	11(2)	1(0)	18(3)	35(7)	16(3)	68(13)	116(22)	258(49)	523

3.2.2.3 B 출판사 3학년 교과서 대화 분석

B 출판사의 3학년 교과서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직접 질문의 표현이 266회 50%로 여전히 제일 많다. 직접 질문의 표현은 1학년 58%, 2학년 55%에서 3학년의 경우는 좀 낮아지긴 했으나 Gibbs의 13가지 유형 중 50% 이상을 넘는 매우 치우친 사용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한번도 사용되지 않은 표현이 1학년 4가지 유형, 2학년 4가지 유형, 3학년 4가지 유형이나 되어서 다양한 요청 표현의 학습과는 거리가 멀었다. Gibbs의 요청 유형중 상위 빈도에 해당하는 가능의 표현은 3개 학년 중 3학년 과정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72회, 13%)

다음은 1,2학년에서 사용했던 "Can you~ ?"의 가능 유형의 요청 표현을 사용하나, 더 간접적인 방법으로 말하여 공손한 느낌을 주는 대화 예문이다.

Yumi: Minho, you didn't return the CD player again.

Minho: I'm sorry.

Yumi: Can you tell me the reason why you didn't return it?

Minho: My mother was sick, so I forgot all about it.

(B 출판사 3학년, p.199)

Man: Excuse me. Could you tell me where the restroom is?

Woman: Sure There's one at the end of the hall.

Man: Thank you.

(B 출판사 3학년, p.72)

위의 두 예문은 “Can you tell me~ ?”의 요청 표현을 각각 “Why didn't you return it?” 과 “Where is the restroom?”으로 질문 할 수 있으나, 직접적이고 간결한 표현 대신에 서두에 “Can you~ ?” 또는 “Could you~ ?”를 사용하여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발화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공손도가 증가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B 출판사에서 3개 학년 중 3학년 교과서에 처음 제시되는 요청 표현은 다음과 같은 내포문의 요청 유형이다.

The following is a dialog between Minho and a blind woman on the street. Let's read and practice.

Minho: Excuse me. Is it OK if I help you cross the street?

Woman: Sure, thanks. It's very nice of you to help me.

.....생략

(B 출판사 3학년, p.34)

내포문의 요청 유형도 간접적인 표현의 하나로 상대방에게 선택의 폭을 더 허용해 주기 때문에, 그다지 선택의 여지가 주어지지 않는 직접적인 표현보다 공손하게 느껴진다.

B 출판사 3학년 교과서에 나타난 대화는 1, 2학년의 경우보다 간접적으로 말하는 표현이 많아서 공손한 표현이 심화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다음의 경우는 “Can you play ~ ?”로 말할 수 있으나, 다른 표현으로 요청 하여 다양한 유형의 표현을 학습 할 수 있도록 돕는다.

Minho: Will you be able to play baseball this afternoon?

Hodong: Sorry, I'm not sure if I can. I have to study for the exam.

Minho: Come on. It will be really fun.

(B 출판사 3학년, p.218)

다음과 같이 확인 학습의 문제 <보기>에서 제시된 표현이 복문의 형태로 제시 되어 다양한 요청 표현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Can you tell me the reason why?

Can you tell me why we have to study science?

Can you tell me the reason why he didn't come to the party?

(B 출판사 3학년, p.208~209)

B 출판사 3학년 교과서에 나타난 대화자들의 사회적 지위와 관계는 1,2학년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지위와 관계가 정확히 명시된 경우는 드물었다. 3년 과정을 통하여 등장인물들은 유사하나(민호, 미라, 수진, 인수, 유미, 톰, 호동 등) 등장인물들 간의 관계를 정확히 알려주는 대화예문이 없어서 단지 아는 사람으로 밖에 간주 되지 못했다. 그러나 A 출판사의 A, B로 주어지는 대화자들의 경우보다 인명을 제시하는 대화가 더 많았으며 특히 Dialog 파트는 대화 예문 서두에 상황 설명을 A 출판사보다 비교적 자세하게 하고 있었다.

이상과 같이 B 출판사 3학년 (B 3으로 표시)의 분석 결과를 표를 이용하여 요약하면 표16, 표17과 같다.

<표 16> Gibbs의 요청 표현에 따른 교과서 분석 (B 3)

단위: 사용횟수(%)

유형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합계
B 3	24(4)	139(9)	7(0)	85(6)	813(54)	0(0)	0(0)	260(17)	0(0)	36(2)	14(3)	7(1)	0(0)	536

<표 17> 사회적 관계에 의한 교과서 분석(B 3)

단위: 사용횟수(%)

유형	1	2	3	4	5	6	7	8	9	합계
B 3	3(1)	0(0)	4(1)	37(7)	36(7)	35(7)	31(6)	131(24)	159(48)	536

지금까지 B 출판사의 1학년부터 3학년까지의 교과서를 살펴본 결과, A 교과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직접 질문 요청에 편중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A, B 모두 진술 표현의 사용이 미미하며 특히, 이름과 소유, 부과 유형의 요청 표현은 3년 동안 한번도 보여주고 있지 않다는 공통적인 문제점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A 교과서가 71%나 직접 질문의 요청에 편중하는 것에 비교해, B 교과서는 54% 정도 치중하고 희망과 가능의 유형을 A 교과서보다 훨씬 높게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표현의 다양성이 낮다고 하겠다. 그리고 B 교과서는 가능 표현을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4%→ 9%→ 13%로 꾸준히 증가하여 보여주고 있다. 대화문의 길이는 1학년부터 비교적 길게 제시하였으며, 간접적인 표현이나 우회적 표현들로 공손한 대화 전개를 보여주는 예문들이 많았다.

사회적 관계에 있어서 A, B 모두 알 수 없는 대화자들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B 교과서는 A 교과서의 A, B라는 대화자 표시 보다 인명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아서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나, 학년이 올라감에 따

라 대화자들의 관계가 더 친밀해진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그때그때의 인물 명에 지나지 않아서 아쉬움이 있다. 그리고 Man과 Woman이라는 등장인물을 상황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까지 남발하는 단점이 있다. 그러나 Dialog 제시에 앞서 대화자들의 사회적 관계를 제시한 것과 상황을 설명해 주는 지문은 B 교과서가 갖는 가장 큰 장점으로 생각된다.

B 출판사 교과서의 대화 분석 결과를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종합하면 표 18, 표19와 같다.

<표 18> Gibbs의 요청 표현의 유형에 따른 교과서 분석(B 출판사)

유형	표현 예 (학년별)	1학년 (445)	2학년 (523)	3학년 (536)	총 계 (1504)
1. 희망	1.I'd like to have a hamburger and milk.	29(7%)	16(3%)	24(4%)	69(5%)
	2.I want to report school news to students.				
	3.I'm dying to see the concert.				
2. 가능	1.Can you come to my house by six?	18(4%)	49(9%)	72(13%)	139(9%)
	2.Could you tell me how to make a gimhap?				
	3.Could you tell me the reason why~				
3. 진술	1.You are late again.	2(0%)	1(0%)	4(1%)	7(0%)
	2.I lost my dog.				
	3.You didn't return the CD player again.				
4. 허가	1.May I take your order?	57(13%)	8(2%)	20(4%)	85(6%)
	2.Can I join the club, too?				
	3.Can I see your program just for a second?				
5. 직접질문	1.Do you like it?	257(58%)	290(55%)	266(50%)	813(54%)
	2.What do you want to do in the club?				
	3.What do you think of that, Minho?				
6. 이름	1.-	0(0%)	0(0%)	0(0%)	0(0%)
	2.-				
	3.-				
7. 소유	1.-	0(0%)	0(0%)	0(0%)	0(0%)
	2.-				
	3.-				
8. 직접요청	1.Help me, please.	55(12%)	91(17%)	114(21%)	260(17%)
	2.See you then.				
	3.Look on the bright side.				
9. 부과	1.-	0(0%)	0(0%)	0(0%)	0(0%)
	2.-				
	3.-				
10. 위임	1.Will you come with me?	7(2%)	14(3%)	15(3%)	36(2%)

	2.Would you like another drink?				
	3.Will you buy me a newspaper too?				
11. 비정형	1.How about ten o'clock?	19(4%)	49(9%)	14(3%)	82(5%)
	2.Why don't we go th the movies ~				
	3.Why don't we change that?				
12. 내포	1.-	0(0%)	0(0%)	7(1%)	7(0%)
	2.-				
	3.Is it OK if I close the window?				
13. 의무	1.You should wait in line.	1(0%)	5(1%)	0(0%)	6(0%)
	2.You should not do this.				
	3.-				

<표 19> 사회적 관계에 의한 교과서 분석(B 출판사)

	사회적 지위	사회적 거리	1학년 (445)	2학년 (523)	3학년 (536)	총계 (1504)
1	화자 = 청자	아는 사람	0(0%)	0(0%)	3(1%)	3(0%)
2	화자 = 청자	모르는 사람	0(0%)	11(2%)	0(0%)	11(1%)
3	화자 = 청자	가족	1(0%)	1(0%)	4(1%)	6(0%)
4	화자 = 청자	친구	2(0%)	18(3%)	37(7%)	57(4%)
5	화자 > 청자 화자 < 청자	아는 사람	13(3%)	35(7%)	36(7%)	84(6%)
6	화자 > 청자 화자 < 청자	모르는 사람	32(7%)	16(3%)	35(7%)	83(6%)
7	화자 > 청자 화자 < 청자	가족	34(8%)	68(13%)	31(6%)	133(9%)
8	나타나지 않음	모르는 사람	69(16%)	116(22%)	131(24%)	316(21%)
9	나타나지 않음	아는 사람	294(66%)	258(49%)	159(48%)	811(54%)

3.2.3 C 출판사 교과서의 대화 분석

C 출판사의 중학교 1학년에서 3학년 과정까지 영어교과서의 대화 내용을 분석한 결과 직접 요청의 표현이 총 1069회, 59%로 나타나 심한 편중 현상을 보여준다. 그러나 A, B 교과서가 Gibbs의 13가지 요청 표현 유형 중 0% 빈도를 나타내며 한번도 보여주지 않았던 표현이 있었던 반면에 C 교과서는 Gibbs의 13가지 유형에 대한 각각의 표현을 최소 총 7회 이상 보여 주고 있다. 사회적 지위를 알 수 없는 경우는 3년 과정 중 총 1,235회, 68%에 달했고 이중에서 사회적 지위뿐 아니라 사회적 거리 모두 알 수 없는 경우는 총 1,091회, 60%이다. 그 다음으로 많은 경우는 사회적 지위가 같은 친구와의 대화가 총 451회, 25%이다. 단원 구성 중 Talking Activities는 지시문에서 짝과 함께 대화하도록 하고 있어, 대화자의 관계가 사회적 지위가 같은 친구와의 관계로 취급된다. Functions에서는 상황을 삽화로 묘사하고 있으나 대화자들의 사회적 지위와 거리에 대한 설명이 없어 사회적 지위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 Functions는 상황 이해를 도와주기 위해 삽화로 제시했으나 다음과 같이 한 가지의 표현 익히기에 단 두 장면을 제시하고 있어서 대화 표현의 유형을 단편적으로 밖에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제시: 잘 듣고, 따라 하면서 앞에서 배운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삽화: 여자와 남자가 전화하는 삽화

1. 전화하기

(첫 번째 삽화)

여자: Hello. May I speak to Bob, please?

남자: Speaking.

(두 번째 삽화)

남자: Who's calling, please?

여자: Hi, Bob. This is Su-mi.

(C 출판사 1학년, p.122)

이와 같은 대화의 보기는 다음과 같이 3학년까지 계속 된다.

제시: *Let's summarize what we have learned so far.*

삽화: 남자 두 명이 전화하는 삽화

1. 전화하기

(첫 번째 삽화)

남자: May I ask who's calling?

(두 번째 삽화)

남자: This is Mike Brown.

(C 출판사 3학년, p.234)

학습 단원의 목표로 요청하기를 제시 한 경우는 1학년 2개 단원, 2학년 3개 단원, 3학년 2개 단원으로 총 7개 단원이다.

C 출판사의 교과서의 대화 내용을 각 학년 별로 살펴보도록 한다.

3.2.3.1 C 출판사 1학년 교과서의 대화 분석

1학년의 대화 내용 중 가장 많은 요청 표현은 A, B 출판사와 마찬가지로 직접 질문의 사용이다. (394회, 60%) 그리고 아래 보이는 예문 같은 진술 요

청 표현이 1학년의 대화 예문에서 다른 학년과 비교하여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제시: 알맞은 응답을 골라 보기와 같이 써 봅시다.

A: I'm thirsty.

B: I'll get a drink for you.

(C 출판사 1학년, p.165)

위의 예문은 상대방이 진술의 표현을 사용할 경우 어떻게 응답해야 하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다음은 물건사기를 학습 목표로 하는 단원에서 보여주고 있는 대화 예문이다.

A: May I help you?

B: Yes, please. Do you have this blouse in medium?

A: Sure. Here you are.

B: It's nice. I'll take it.

A: Anything else?

B: No thanks. Can you wrap it, please? It's a gift for my mom.

A: No problem

(C 출판사 1학년, p.156)

위의 대화 예문에서 “May I help you?”같은 허가 유형의 요청 표현과 함께 “Do you have this blouse in medium?”같은 소유 유형의 요청 표현을

볼 수 있다. 소유 유형의 요청 표현은 A, B 교과서에서는 볼 수 없었던 요청 표현으로 똑같은 학습 목표를 갖는 물건사기에 대한 A 출판사는 다음과 같이 허가 유형의 요청 표현과 희망 유형의 요청 표현의 대화를 보여주는 것과 비교된다.

제시: 짝과 함께 그림 속의 각 상점에서 판매원과 손님이 되어 대화를 나눠 봅시다.

A: May I help you?

B: Yes, I'm looking for a coat.

(A 출판사 1학년, p.196)

C 출판사 1학년 교과서 대화 예문의 사회적 지위와 거리에 대하여 살펴보면, Mina, Mike, Mrs. Johnson 등의 인물이 각 단원의 대화에 자주 등장한다. 첫 단원에서 Mrs. Johnson은 영어선생님으로 소개되어, 앞으로 대화에서 Mrs. Johnson은 사회적 지위가 다르고 (학생들과의 대화에서) 사회적 거리는 아는 사람인 것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단원에서는 Mina의 가족 소개를 통하여, 대화에 등장하는 인물들 사이의 관계를 학습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한다. Minsu는 Mina의 오빠이며, Minho는 동생이다. 아빠의 직업은 기술자이고 엄마는 간호사라고 밝히고 있다. 특히, Mina와 Mike는 친구이며, Mike의 엄마는 Mrs. Johnson이라는 것을 알려줌으로써 앞으로 대화 예문에 주로 등장하는 Mina와 Mike의 대화를 접할 때 사회적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수고를 덜어준다. C 출판사 교과서는 A와 B 출판사의 교과서 보다 비교적 상세하게 사회적 지위와 관계를 앞 단원에서 밝혀주고 있어 대화자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쉽고 상황과 사회적 관계에 적합한 대화를 학습하기에 도

움이 된다. 반면 A와 B 출판사는 인명으로 제시된 대화 예문의 경우 새로운 인명이 자주 제시됨에 따라 단원이 진행되면서 사회적 관계의 지속성을 염두에 두기에는 너무 많은 인명이 제시되고 있다. (A 출판사는 친구일 것 같은 인명이 제인, 민지, 알렉스, 수미, 진모, 나리, 인규, 소라, 민호, 미나 등이고 B 출판사는 민호, 미라, 수진, 케이트, 유미, 린다, 인수, 호동, 알렉스, 브라운, 남호, 동수 등이다.) 이에 비하여 C 출판사는 미나와 마이크가 친구인 것을 정확히 제시하고 친구 사이의 대화를 두 명의 인명으로 주로 보여주고 있어서 단원과 학년이 진행됨에 따라 대화의 등장인물에 좀 더 주의를 집중할 수 있게 한다. 따라서 A, B, C 세 개의 출판사중 C 출판사의 인명 제시 방법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이상과 같이 C 출판사 1학년 (C 1로 표시)의 분석 결과를 표를 이용하여 요약하면 표20, 표21과 같다.

<표 20> Gibbs의 요청 표현에 따른 교과서 분석 (C 1)

단위: 사용횟수(%)

유형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합계
C 1	12(2)	4(1)	65(10)	37(6)	394(60)	14(2)	9(1)	84(13)	0(0)	0(0)	34(5)	0(0)	0(0)	653

<표 21> 사회적 관계에 의한 교과서 분석(C 1)

단위: 사용횟수(%)

유형	1	2	3	4	5	6	7	8	9	합계
C 1	0(0)	0(0)	0(0)	176(2)	18(3)	15(2)	16(2)	369(62)	59(9)	653

3.2.3.2 C 출판사 2학년 교과서의 대화 분석

C 출판사의 2학년 교과서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1학년 대화 예문 분석 결과와 같이 직접 요청의 유형이 353회, 56%를 나타내어 가장 많고 그 다음은 직접 요청으로 79회, 13% 사용되었다. C 출판사의 3년 과정 중 2학년 대화 예문에서 다음의 두 예문과 같은 위임의 요청 유형이 48회 8%로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제시: Have a conversation with your friends as in the model dialog and complete the table below.

A: Are you busy, Mi-na?

B: No, I'm not.

A: Would you help me finish the project?

B: No problem./No. I'm sorry, but I can't.

(C 출판사 2학년, p.135)

A: Would you please help me move this box? It's heavy, so I can't move it alone.

B: Sure. To where?

A: I'm supposed to move it upstairs.

B: Okay, no problem.

(C 출판사 2학년, p.132)

상기의 처음 예문은 “Are you busy, Mi-na?”로 대화를 시작하여 상대방의 의견을 먼저 물었고 두 번째 예문은 “It's heavy, so I can't move it alone.”처럼 요청 표현과 함께 요청의 이유를 들어 공손한 표현이 되도록 하였다.

희망 유형의 요청 표현은 C 교과서 3년 과정 중 2학년의 대화 예문에서 41회 7%로 가장 많이 보이고 있다. 예문은 다음과 같다.

제시: Listen and choose the picture for each conversation. Then have a conversation with your friend as in the model dialog.

A: Do you plan to see the movie?

B: Yes, I do. I'm dying to see it. Do you want to go with me?

A: Sure.

(C 출판사 2학년, p.35)

이름 유형의 요청 표현은 A, B, C, D의 출판사 중 C 출판사 2학년의 대화 예문에서 15회 2%로 가장 많이 보여 지고 있다. 이름 유형의 요청 표현은 음식을 주문하는 아래와 같은 대화 예문에서 자주 사용 되었다. 이때, 요청 표현 “ I'll have a ~ ”와 같이 다른 표현이 가능하다는 것도 함께 보여주고 있다.

Waiter: Good evening.

Man: Good evening. Could we have a table for two, please?

Waiter: Certainly.

Waiter: Would you like to order now?

Woman: Yes. I think I'll have a steak with French fries.

Waiter: How would you like your steak?

Woman: Medium. please. And I'll have a salad.

Waiter: And for you?

Man: I'll have a steak.

Waiter: How would you like your steak?

Man: Medium, please.

Waiter: Would you like something to drink?

Man: Coke, please.

Waiter: Thank you.

Woman: It was a lovely meal. I really enjoyed it. Thank you.

Man: I'm glad you enjoyed the meal.

(C 출판사 2학년, p.165)

이름을 호칭하는 표현도 요청 표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please”를 함께 사용하여 공손한 표현이 되도록 하고 있다.

아래의 대화는 자연스러운 대화를 이끌어 가는 방법을 보여주는 예문으로 다음과 같이 “적절한 대응이 대화를 부드럽게 한다.”고 설명과 함께 대화를 제시하고 있다. A, B, D 교과서에서는 이러한 설명을 볼 수 없었다. 요청 표현을 필요로 하는 상황에서 공손한 표현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또한 원활한 대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볼 때, 다음과 같이 상대방의 말에 적극적인 태도로 원활한 대화를 이끄는 대화 학습은 공손 표현 학습의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제시: 대화를 할 때, 상대의 말에 적절히 대응을 하면 대화가 부드러워
집니다. 잘 듣고, 빈 칸에 들어갈 말을 쓰고 대화를 나누어 봅시다.

A: Look at the geese up there.

B: What did you say?

A: Look at the geese flying in a V.

B: Wow! What a nice shape! It's impressive.

A: Yes, that's really wonderful. By the way, why do they fly in
a V?

B: Well, I don't know.

A: Neither do I. Let's go and ask our teacher.

B: Okay.

(C 출판사 2학년, p.184)

C 교과서와 다른 교과서의 차이점은 대화 내용을 제시할 때, 중요한 표현
에 대하여 설명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요청에 대한 수용과
거절을 어떻게 말하면 공손한 표현이 되는지(2학년, p.193), 정중하게 부탁할
때 "Would you do me a favor?" 라는 표현을 사용한다는 것(2학년, p.214),
그리고 위의 예문처럼 적절히 대응하면 대화가 부드러워 진다는 설명과 같
다. A, B 교과서도 자연스러운 대화전개 방법이나 대화를 공손하게 이끄는
방법을 보여주고 있긴 하나, C 교과서처럼 설명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설명의 제시는 학습자가 공손하고 부드러운 대화가 어떠한 것인지 이
해하도록 돕고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바람직하다고 생각된
다.

다음은 요청에 대한 수용과 거절의 표현을 어떻게 말하면 공손하게 표현

하는 가를 학습하도록 하는 대화 예문이다.

2학년 교과서의 대화 예문이 사회적 지위와 거리를 어떻게 보여주는지 살펴보면, 대화의 주요 인물은 1학년과 동일한 Mina와 Mike이다. 이들의 대화가 115회 21% 이지만, Listen파트 등 다른 구성 부분에서의 대화 내용에서는 대화자들의 사회적 지위를 알 수 없는 경우가 427회 6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Functions의 삽화에서 보이는 대화자들의 사회적 지위와 거리는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다음은 대화를 학습하는 단원의 Interactions라는 구성 중 대화자간의 역할 지시 없이 표현을 나열하고 연습하라고 제시한 경우이다. 이와 같은 경우는 그림으로 상황이 주어졌다 하더라도 <Help>에 대화자간에 손님이나, 주문 받는 사람 등으로 주어져야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제시: Listen and mark for what Mike ordered. Then have a conversation with your friend using the expressions given below.

Help: May I help you?

For here or to go?

Anything else?

(C 출판사 2학년, p.155)

제시: Listen and choose the correct pictures. Then have a conversation with your friend using the expressions given below.

Help: Are you ready to order?

How would you like your steak?

Well-done , please.

(C 출판사 2학년, p.155)

이상과 같이 C 출판사 2학년 (C 2로 표시)의 분석 결과를 표를 이용하여 요약하면 표22, 표23과 같다.

<표 22> Gibbs의 요청 표현에 따른 교과서 분석 (C 2)

단위: 사용횟수(%)

유형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합계
C 2	41(7)	20(3)	19(3)	13(2)	353(56)	15(2)	0(0)	79(13)	0(0)	48(8)	30(5)	0(0)	7(1)	625

<표 23> 사회적 관계에 의한 교과서 분석(C 2)

단위: 사용횟수(%)

유형	1	2	3	4	5	6	7	8	9	합계
C 2	0(0)	1(0)	3(0)	160(26)	0(0)	34(5)	0(0)	386(62)	41(7)	625

3.2.3.3 C 출판사 3학년 교과서의 대화 분석

C 출판사의 3학년 교과서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직접 질문의 요청 표현을 322회 60%를 사용하여 1,2학년과 마찬가지로 가장 높은 빈도수를 보인다. 그 다음으로 많이 사용한 표현은 직접 요청의 표현이다.(61회, 11%) 가능의 요청 표현은 1,2학년과 비교했을 때 3학년 교과서의 대화 예문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33회, 6%) C 교과서의 3학년 대화 예문에서 주목

할 점은 다른 학년에서는 전혀 볼 수 없었던, 다음과 같은 부과 유형의 요청표현이 12회 2%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다.

제시: Let's play the "Would you mind" game in groups.

5명씩 짝을 지어 한 사람이 왼쪽 사람에게 질문을 하면 왼쪽 사람은 적절한 응답을 하고, 나머지 사람은 그 응답대로 행동하는 놀이를 해 본다.

Help: Would you mind if I opened the window?

→ Not at all.

→ Yes, I'm afraid I do.

또한 내포 유형의 요청 표현도 부과 유형과 같이 다른 학년에서는 볼 수 없었으나 3학년의 대화 예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각기 다른 단원에서 다른 표현으로 (“Is it OK if I~ ?” 와 “I wonder if I~ ?”) 소개되고 있다.(7회, 1%)

제시: Look at the pictures below and have a conversation, as in the model dialog.

보기: Would you do me a favor?

What's up?

My PC doesn't work. Is it OK if I use your PC?

Certainly./ Sorry, but I have to use it now.

(C 출판사 3학년, p.55)

Man: Blue Ngo office. May I help you?

Mike: Yes. I'm calling to get some information about your volunteers program.

Man: That's no problem. What field are you interested in, please?

Mike: I'm interested in teaching. I wonder if I can teach in the evening school.

Man: Sure. May I ask who's calling, please?

Mike: This is Mike Johnson.

(C 출판사 3학년, p.228)

3학년의 대화 예문이 직접 질문의 요청 표현을 사용하는데 치우쳐 있기는 하나, 위와 같이 1,2 학년에서 보여주지 않았던 다양한 요청 표현을 사용하고 있고 Gibb's의 13가지 요청 유형 표현을 모두 사용하고 있다. 특히, 이름과 소유 유형의 요청 표현은 A, B, D 출판사의 교과서에서는 볼 수 없었으나 C 출판사는 이름과 소유 유형의 표현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장 다양한 표현을 보여주고 있다고 판단된다.

3학년 교과서에서 허락요청하기를 학습 목표로 제시하고 있는 단원에서 학습 활동으로 허락요청이 필요한 상황을 예로 들고, 각각의 상황에서 어떻게 요청을 할 것인지를 게임을 통해 익히도록 하고 있다. A, B, 출판사에서 허락요청하기를 학습 목표로 제시한 단원이 있었으나, C 출판사와 같이 상황을 다양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았다. 상황과 요청의 표현이 중요한 관계를 갖는다고 볼 때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상황을 설정하고 학습하도록 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여겨진다.

제시: *Let's play the "What Would You Say?" game in groups.*

두 명씩 짝을 지어 한 사람은 동전을 던져(앞면-1칸, 뒷면-2칸) 그 숫자에 해당하는 보드판에 제시된 상황을 말하고, 다른 사람은 그 상황에 대해 요청하는 대화를 해 봅시다.

보드판에 설명된 상황:

You are about to take a test, but you feel sick.

It's very cold, but the windows are open.

You want to borrow your friend's pen.

You didn't bring your homework.

You want to go shopping with your friend.

You're hungry, but you have no money.

You lost your friend's book.

Help: Is it OK if I take the test tomorrow?

Do you mind if I take the test tomorrow?

Can I take the test tomorrow?

Sure. (또는 Certainly. 또는 No problem.)

No. (또는 I'm afraid you can't.)

(C 출판사 3학년, p.53)

다음은 상대방의 말을 듣고 어떻게 응답을 하여야 상황에 맞는 표현이 되는지 위의 경우와 같이 상황을 제시하고 알맞은 표현을 학습하도록 하고 있다. 상황에 적절한 표현이 공손 표현 익히기와 깊은 관계가 있으며, 이러한 상황 설정이 학습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제시: 두 명씩 짝을 지어 한 사람은 보드판에 제시된 상황을 말하고, 다른 한 사람은 주어진 표현을 이용하여 적절한 응답을 해 봅시다.

보드판에 설명된 상황:

I lost the game.

I won the game.

I failed the exam.

I passed the exam.

I lost the same books as you bought yesterday.

I visited more places than I planned last year.

I read fewer books than I was supposed to.

Help: What a surprise!

That's unbelievable

I don't know what to say.

I'm sorry to hear that.

(C 출판사 3학년, p.104)

3학년 교과서의 대화 예문이 보여주는 주요 인물은 1,2학년과 동일한 Mina, Mike, Mrs. Johnson 등이다. 그 외의 Functions와 같은 파트에서 사회적 지위를 알 수 없는 경우가 380회 71%를 나타내고 있어서 역시 1,2학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회적 지위나 거리에 대한 제시를 하지 않는 대화 예문의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허락요청하기, 상대방의 표현에 적절한 응답하기 등과 같은 학습 목표를 갖는 단원에서 위에 살펴본 바와 같이 상황을 변수로 제시하기 위해 여러 경우를 설명하였고 상황에 따라 대화하도록 함으로써 상황에 따른 적절한 대화 익히기에 바람직하다고 보여 진다.

C 출판사 3학년 교과서의 요청 표현을 학습하는 단원에서 사회적 관계에 따라 적절한 표현을 익히도록 하였다. 예를 들어 "Sure."는 친한 사이에 사용할 수 있는 긍정의 대답으로 보통 "Yes"나 "Certainly."를 사용 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가까운 친구끼리라도 "Is it Ok if~ ?" 혹은 "Is it all right

if~ ?"라고 말하여 허락을 요청한다고 설명하면서 사회적 관계에 따른 표현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A 출판사와 비교하면, A 출판사 3학년 과정에서(3학년,p.79) C 출판사와 같은 허락요청 표현을 학습 목표로 하나, A 출판사는 사회적 관계에 대한 설명이 없다는 차이점을 알 수 있다.

이상과 같이 C 출판사 3학년 (C 3으로 표시)의 분석 결과를 표를 이용하여 요약하면 표24, 표25와 같다.

<표 24> Gibbs의 요청 표현에 따른 교과서 분석 (C 3)

단위: 사용횟수(%)

유형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합계
C 3	5(1)	33(6)	33(6)	16(3)	322(60)	2(0)	3(1)	61(11)	12(2)	12(2)	31(6)	7(1)	0(0)	537

<표 25> 사회적 관계에 의한 교과서 분석(C 3)

단위: 사용횟수(%)

유형	1	2	3	4	5	6	7	8	9	합계
C 3	0(0)	0(0)	0(0)	160(26)	9(2)	17(3)	16(3)	386(62)	44(8)	537

지금까지 C 출판사의 1학년부터 3학년까지의 교과서를 살펴본 결과, A, B 교과서와 마찬가지로 직접 질문 요청에 편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A, B 교과서에서 볼 수 없었던 이름, 소유 유형의 요청 표현이 최소 7회 이상 사용되었다. 그리고 진술, 부과, 위임의 표현도 다른 교과서보다 많은 횟수를 보여주어 Gibbs의 13가지 유형을 비교적 다양하게 보여 주고 있다. 대화자 사이에 설정된 사회적 관계는 사회적 지위와 거리를 알 수 없는 경우가 총 대화 예문의 60%를 나타내어 A, B, C 교과서중 가장 편중된 현상을

보인다. 대화 예문의 주요 인물들이 3년 교과서에서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고 1학년에서 이들의 관계를 설명하여 사회적 관계 파악에 어려움은 없으나, Functions 파트 같은 상황에서는 대화자간의 관계를 파악할 수 없다. C 교과서가 갖는 장점은 자연스럽게 공손한 대화 표현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대화 예문과 더불어 설명을 직접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며, 요청 하는 표현을 학습 목표로 할 경우 상황을 다양하게 제시하고 요청 표현을 익히도록 하여 상황이 요청 표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인식시키고 있는 것이다.

C 출판사 교과서의 대화 분석 결과를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종합하면 표 26, 표27과 같다.

<표 26> Gibbs의 요청 표현의 유형에 따른 교과서 분석 (C 출판사)

유형	표현 예 (학년별)	1학년 (653)	2학년 (625)	3학년 (537)	총 계 (1815)
1. 희망	1.I'd like to take a class	12(2%)	41(7%)	5(1%)	58(3%)
	2.I'm dying to see it.				
	3.I'd like to learn tennis.				
2. 가능	1.Can you wrap it, please?	4(1%)	20(3%)	33(6%)	57(3%)
	2.Could you give me a hand?				
	3.Can you show me how to hit a baseball?				
3. 진술	1.I don't feel well.	65(10%)	19(3%)	33(6%)	117(6%)
	2.I'm late for the train.				
	3.I don't know how I should practice.				
4. 허가	1.May I speak to Bob?	37(6%)	13(2%)	16(3%)	66(4%)
	2.May I help you?				
	3.May I ask you a question?				
5. 직접질문	1.What time is it?	394(60%)	353(56%)	322(60%)	1069(59%)
	2.Do you want to join me?				
	3.What do I have to do?				
6. 이름	1.Red, please.	14(2%)	15(2%)	2(0%)	31(2%)
	2.Coffee, please.				
	3.Five.				
7. 소유	1.Do you have this dress in size10?	9(1%)	0(0%)	3(1%)	12(1%)
	2.-				
	3.Do you have any suggestions?				
8. 직접요청	1.Here is the list of the classes.	84(13%)	79(13%)	61(11%)	224(12%)
	2.Open the bin for me, will you?				

	3.Please tell him to call me back this evening				
9. 부과	1.-	0(0%)	0(0%)	12(2%)	12(1%)
	2.-				
	3.Would you mind if open the window?				
10. 위입	1.-	0(0%)	48(8%)	12(2%)	60(3%)
	2.Would you help me do it?				
	3.Would you like to come with me?				
11. 비정형	1.How about you?	34(5%)	30(5%)	31(6%)	95(5%)
	2.Why don't you hurry up?				
	3.If I were you, I would write her a nice letter.				
12. 배포	1.-	0(0%)	0(0%)	7(1%)	7(0%)
	2.-				
	3.Is it OK if I use your PC?				
13. 의무	1.-	0(0%)	7(1%)	0(0%)	7(0%)
	2.You can't wear shoes in the pool.				
	3.-				

<표 27> 사회적 관계에 의한 교과서 분석(C 출판사)

	사회적 지위	사회적 거리	1학년 (653)	2학년 (625)	3학년 (537)	총계 (1815)
1	화자 = 청자	아는 사람	0(0%)	0(0%)	0(0%)	0(0%)
2	화자 = 청자	모르는 사람	0(0%)	1(0%)	0(0%)	1(0%)
3	화자 = 청자	가족	0(0%)	3(0%)	0(0%)	3(0%)
4	화자 = 청자	친구	176(2%)	160(26%)	160(26%)	451(25%)
5	화자 > 청자 화자 < 청자	아는 사람	18(3%)	0(0%)	9(2%)	27(1%)
6	화자 > 청자 화자 < 청자	모르는 사람	15(2%)	34(5%)	17(3%)	66(4%)
7	화자 > 청자 화자 < 청자	가족	16(2%)	0(0%)	16(3%)	32(2%)
8	나타나지 않음	모르는 사람	369(57%)	386(62%)	386(62%)	1091(60%)
9	나타나지 않음	아는 사람	59(9%)	41(7%)	44(8%)	144(8%)

3.2.4 D 출판사 교과서의 대화 분석

D 출판사 중학교 1학년에서 3학년 과정까지 영어교과서 대화내용을 분석한 결과 직접 질문의 요청 유형이 총 725회 60%를 나타내어 가장 높은 빈도수를 나타냈고, 두 번째로 많이 사용된 표현은 직접 요청 유형이다. (총 199회, 16%) 그 외에 희망 유형의 요청 표현, 비정형 요청 표현 등이 자주 사용되었다. D 출판사의 대화 예문에 나타난 대화자들의 사회적 지위를 알 수 없는 경우가 3년 과정에서 총 847회 70%를 나타낸다. 이것은 A, B, C, D의 네 출판사 중 B 출판사의 1,127회 75% 다음으로 두 번째로 높은 빈도수이다. D 출판사에서 두 번째로 많이 보이는 사회적 거리는 친구와의 사이이다. 1학년 교과서 내용에 들어가기 전 권두에 주요 등장인물들을 어깨동무를 하고 있는 사진과 함께 제시하고, 각 인물의 이름을 Cathy, Sujin, Mike, Minsu 로 알려주고 있다. 비록 이들의 관계가 친구라고 정확히 알려 주고 있지는 않지만, Dialog에 주요한 인물로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친구 관계의 대화를 보여주기 때문에 사회적 관계를 친구 관계로 간주하기로 한다. D 출판사의 1~ 3학년 교과서의 Dialog가 그림과 함께 주어지고 있으나, 상황 제시의 역할을 하기보다 주로 인물들이 대화하고 있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을 따름이다.

요청내지 부탁과 관련한 표현 익히기를 단원의 학습 목표로 제시하고 있는 경우는 1학년 2개 단원, 2학년 1개 단원, 3학년 2개 단원으로 총 5개 단원이다.

D 출판사의 교과서의 대화 내용을 각 학년 별로 살펴보도록 한다.

3.2.4.1 D 출판사 1학년 교과서 대화 분석

1학년의 대화 내용 중 가장 많은 요청 표현은 직접 질문의 사용이다.(총 205회 58%) Dialog의 주요 등장인물이 친구 관계이기 때문에 격의 없고 간결한 질문과 대답을 주고받으며, 직접 질문이나 직접 요청의 표현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각 출판사가 보여준 물건사기의 대화 예문을 비교하면, A, B교과서는 "Can I ~ ?" 또는 "May I ~ ?"의 둘 중 하나의 표현으로 시작하는 구문을 보여주고 있으며 C, D교과서는 두 가지 표현을 모두 제시하여 보여주고 있다. 또한, D 출판사의 대화 예문은 요청 표현을 말할 때 마다 다른 가능한 요청 표현을 함께 보여주고 있어 다양한 표현 학습에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다른 교과서의 물건사기 대화 예문에서 대화자의 호칭을 A, B, Man 등으로 제시한 경우보다 D 교과서에서 Salesperson으로 나타낸 경우가 사회적 관계를 분명히 할 수 있어 바람직 한 것으로 생각된다.

D 출판사 1학년 교과서의 대화 예문이 사회적 지위와 거리를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 살펴보면, 사회적 지위를 알 수 없는 경우가 256회 72%이며, 다음으로 친구와의 관계가 70회 20% 의 빈도를 보여주고 있다.

대화가 이루어지는 상황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알아보면, Dialog 파트의 배경 삽화는 대화 예문의 상황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Dialog 시작에 앞서 상황을 설명하기 보다는 질문을 제시하여 대화의 상황을 파악하도록 하고 있다. 제시된 질문을 보고 학습자들은 대화 내용의 주제를 파악하기 위해 집중할 수는 있겠으나, 어떠한 상황인지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는 없다.

이상과 같이 D 출판사 1학년 (D 1로 표시)의 분석 결과를 표를 이용하여

요약하면 표28, 표29와 같다.

<표 28> Gibbs의 요청 표현에 따른 교과서 분석 (D 1)

단위: 사용횟수(%)

유형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합계
D 1	22(6)	17(5)	12(3)	15(4)	205(58)	0(0)	0(0)	69(19)	0(0)	0(0)	14(4)	0(0)	2(1)	356

<표 29> 사회적 관계에 의한 교과서 분석(D 1)

단위: 사용횟수(%)

유형	1	2	3	4	5	6	7	8	9	합계
D 1	1(0)	0(0)	0(0)	70(20)	7(2)	20(6)	2(1)	143(40)	113(32)	356

3.2.4.2 D 출판사 2학년 교과서의 대화 분석

D 출판사의 2학년 교과서에 나타난 대화 예문 중 가장 많이 사용된 요청 유형은 직접 질문의 요청으로 257회 65%를 차지한다. 두 번째로 많이 사용된 요청 유형은 비정형의 표현으로 44회 11%로 가장 많이 사용된 요청 유형과 사용 횟수에 많은 차이가 있다. 직접 질문의 요청에 심하게 편중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다음은 D 출판사 2학년 교과서에서 요청하기를 학습 목표로 제시한 단원의 Dialog 대화 예문과 Read and Think 부분의 일부분이다.

Cathy: (Laughing)

Minsu: Why are you laughing, Cathy? What's so funny?

Cathy: This book has many interesting stories.

Minsu: Please tell me one, will you?

Cathy: Sure. Here is one. Why is six afraid of seven?

Minsu: Six is afraid of seven? I have no idea. Why is six afraid of seven?

Cathy: Because seven eight nine.

Minsu: Seven eight nine? I don't understand.

Cathy: I mean seven ate nine. Do you get it?

Minsu: Yes, I get it. That's funny.

(D 출판사 2학년, p.46)

"Jenny, would you please say something with the word 'I'?" said the second-grade teacher. The little girl thought for a second, then said, "I is……." "No," the teacher stopped her. "You always say, 'I am.'" Jenny smiled and went on. "I am the letter that comes after H."

(D 출판사 2학년, p.48)

첫 번째 대화 예문은 친구 관계에서 격의 없는 요청 표현을 사용하여 보여주는 대화 예문이고 두 번째 대화 예문은 선생님과 학생 관계에서 격식을 차린 표현의 대화 예문이다. 학습자들은 대화자의 사회적 관계에 따라 요청 표현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D 교과서는 공손한 대화 전개를 보여주기 위해 자연스럽게 제안하기와 제안에 대한 거절을 어떻게 하면 공손하게 표현 하는지 "I'd like to, but~", 또는 "maybe"를 사용하여 보여주고 있다.

Minsu: Mike, summer vacation is coming soon. Do you have any special plans?

Mike: So far I don't have any plans.

Minsu: Really?

Mike: Yeah, maybe I will stay home and study Korean.

Minsu: That sounds good, but you have to get out, too.

Mike: Do you have any ideas?

Minsu: In fact, I do. Why don't you come camping with my soccer team?

Mike: Camping? That sounds interesting.

Minsu: My team will go to a mountain for one week.

Mike: I'd like to, but I have to stay home. My grandfather will be here during summer vacation.

(D 출판사 2학년, p.82)

또, 완화 표지 “maybe”와 “Well”을 사용한 다른 예문을 통하여 부정적 의견을 표현할 때 어떻게 공손하게 의사표시를 하는지 보여준다.

A: When I plan something, things always go wrong. I always look on the bad side of things.

B: Really? Well, maybe you should change.

A: Yes, I think so. I'll try to look on the bright side of things.

(D 출판사 2학년, p.97)

다음은 Gibbs 의 요청 유형 중 높은 빈도를 나타내는 희망 유형과 진술 유형에 해당하는 표현을 자연스러운 대화를 통하여 익힐 수 있도록 제시한 두 가지 대화 예문들이다.

Minsu is going to have a birthday soon. Cathy and Sujin are his good friends. They want to give him a present. They decides to bake him some cookies. They look through all their cookbooks and find a good recipe. It is for cookies.

"OK. Let's start. I need butter, sugar, and an egg," Cathy says.

"Sure, no problem," Sujin says happily. "Here they are." Cathy says,

"Now, I need 1 1/2 cups of flour."

(D 출판사 2학년, p.67)

A: What time is it? I feel hungry.

B: It's almost one o'clock.

A: We are late for lunch.

B: What kind of food do you want?

A: Don't you know? I like Korean food.

B: OK. Let's go. There's a Korean restaurant just down the street.

(D 출판사 2학년, p.121)

위의 두 예문을 통하여, 화자가 상대방에게 직접 요청 하는 표현을 하지 않으나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화자가 의도한 행동을 옮기도록 하는 간접 요

청의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D 출판사 2학년 교과서의 대화 예문에 나타난 대화자들의 사회적 지위와 사회적 거리는 사회적 지위가 나타나지 않은 경우가 282회 70%이고 이중에서도 사회적 지위와 사회적 관계를 모두 알 수 없는 경우는 157회 39%에 해당한다. 그 다음으로 친구와의 대화가 82회 21% 보여 졌다. 대화의 주요 인물은 1학년의 대화 예문과 동일한 Sujin, Mike, Minsu, Cathy 이다.

이상과 같이 D 출판사 1학년 (D 2로 표시)의 분석 결과를 표를 이용하여 요약하면 표30, 표31과 같다.

<표 30> Gibbs의 요청 표현에 따른 교과서 분석 (D 2)

단위: 사용횟수(%)

유형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합계
D 2	25(6)	5(1)	4(1)	1(0)	257(65)	0(0)	0(0)	56(14)	0(0)	3(1)	44(11)	0(0)	3(1)	398

<표 31> 사회적 관계에 의한 교과서 분석(D 2)

단위: 사용횟수(%)

유형	1	2	3	4	5	6	7	8	9	합계
D 2	8(2)	0(0)	5(1)	82(21)	7(2)	7(2)	7(2)	157(39)	125(31)	398

3.2.4.3 D 출판사 3학년 교과서의 대화 분석

D 출판사 3학년의 대화 내용 중 가장 많은 요청 표현은 직접 질문의 표현이다.(263회, 58%) 이외에 가능, 진술, 부과, 위임의 표현이 다른 학년에 비하여 증가하여 다양한 표현을 보여주기는 하나, 한번도 사용되지 않은 표현으

로 이름, 소유, 내포문 유형이 있었다. 그리고 대화 예문이 길어져서 대화 문맥의 중요성이 커졌고 더욱 자연스런 대화의 제시가 가능해졌다.

정중하게 요청하기를 단원의 학습 목표로 정한 경우 Dialog예문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여 부과 유형의 요청 표현을 익히도록 하였다. 1학년의 요청하기 표현 "Can you do me a favor?"나 2학년의 "Please tell me one, will you?"와 비교하여 볼 때 더욱 공손한 표현을 제시하여 학년 간 심화도를 고려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1학년과 2학년의 요청하기 표현의 대화 예문의 대화자들은 모두 친구 관계에 있는 사람이었으나, 3학년의 요청 표현 학습의 대화문에서는 제3자인 "man"과의 대화이다. 그러므로 대화는 격식 있는 표현을 사용하였으며, 공손한 표현을 고려하는 대화가 되었다.

Man: Can you tell me how to get to the 63 Building?

Minsu: Oh, that's a little difficult. Go straight down three blocks and turn left. Next, go one block and turn right. Then, you're at the 63 Building.

Man: (He looks upset.) Would you mind repeating that?

Minsu: Never mind. Follow me.

Man: OK. Thank you. Do we have to queue for the lift?

Minsu: Queue?

Man: Do you know what it means?

Minsu: No, I don't know that word.

Man: Oh, it's British English. "Queue" means "to line up," like for a lift.

Minsu: What is a lift?

Man: A lift is an elevator.

Minsu: Wow! Thanks for explaining and have a great trip.

(D 출판사 3학년, p.14)

위의 예문은 “How to get to~ ?”로 시작하는 문장보다 격식 있는 “Can you~ ?”의 문장을 사용하였고 (He looks upset.) 과 같은 제시는 상황 묘사의 역할을 하여 대화의 문맥을 이해하도록 도움이 되고 있다. Do we have to queue for the lift?에서 I 대신 we를 사용한 것은 일반인을 지칭하여 상대방에게 부담감을 줄여주기 위한 배려로 보인다. 그리고 대화자들이 사용하는 Oh, 같은 표현은 상대의 언급에 적극적인 응수로 대화를 부드럽게 이어질 수 있게 하고 있다.

3학년 교과서의 대화 예문은 가능과 진술 표현의 사용이 각각 6%와 5%로 다른 학년에 비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가능 유형의 요청 표현은 3학년 교과서 대화 예문 중 27회 6%를 나타내어 D 교과서의 3년 과정중 가장 많이 보여주고 있다. 도움 요청하기를 학습 목표로 제시한 단원의 Dialog 예문은 아래와 같다.

Cathy: What's wrong with this thing? It never works.

Minsu: Are you having trouble?

Cathy: Oh, Minsu. You're a computer wizard. Can you give me a hand?

Minsu: Sure! What's the problem?

Cathy: I'm trying to download this song, but it doesn't work.

Minsu: OK. Let me take a look. Oh. This song is copyrighted.

Cathy: Copyrighted? What does that mean?

Minsu: It means you can listen to it, but you can't download it.

Cathy: Do you think I should buy CD?

Minsu: I think you have to. You can't save this song on your MP3 player.

(D 출판사 3학년, p.92)

처음 Cathy의 “What's wrong with this thing? It never works.”의 표현은 직접적인 도움을 구하는 요청 표현이 아니지만, 자신이 처한 상황을 진술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의도하는 행동을 읊기도록 하는 의미를 갖는 표현이다. 이에 따라 Minsu는 Cathy가 처한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고, 두 번째 Cathy의 언급에서 Minsu를 “You're a computer wizard”라고 칭찬하면서 요청의 내용을 밝힌다. 도움을 구하기 위하여 자연스러운 대화를 전개했다. 이와 같이, 화자 자신이 처한 어려움을 먼저 진술하여, 도움을 구하고자 하는 상대방에게 상황의 정보를 주는 것은 다음에 이어질 요청을 공손한 표현이 되도록 도와준다. 다음과 같은 도움을 요청하는 편지 내용도 위와 같은 전개 방식을 보여준다.

Dear Customer Department

First, I want to thank you for your good ideas and hard work. Everyone there has helped me a lot. But, still I have a problem. I can't download those MP3 files from your site. Even though you told how, I can't do it. Can you give me a hand? You are my last hope and I've hope and I've already wasted too much time. Thank you.

(D 출판사 3학년, p.103)

위의 예문에 대하여 공손 표현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서두를 감사하다는 표현으로 부드럽게 시작하여 상대방의 기분을 배려함으로써 공손한 표현이 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자신이 처한 문제를 설명한 다음, “Even though”를 사용하여 상대방의 노력을 강조하고, 자신의 부족함을 드러내어 겸손한 표현이 되도록 하였다. 이러한 표현의 노력은 모두 다음에 이어질 “Can you give me a hand?”라는 요청 표현을 공손하게 말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You are my last hope”라고 간곡한 어투를 사용하여 상대방이 요청을 꼭 받아줄 것을 부탁하는 것으로 끝내고 있다.

다음은 완화 표지를 적절히 사용하여 공손한 표현을 보여주고 있는 대화 예문이다.

Sujin: Hi, Mike, I'm here to help garden.

Mike: Thanks so much for coming.

Sujin: No problem. I like gardening and have a lot to learn. is that flower a daisy? Do you have daises here?

Mike: No. I'm afraid you're wrong. It's a black-eyed Susan.

Sujin: I didn't know that.

Mike: Actually, it's a weed, not a flower. I need to pull them all up.

Sujin: You want to do what? They're beautiful.

Mike: I know, but I want to have roses here.

Sujin: Please move them somewhere else.

(D 출판사 3학년, P.154)

Mike는 부정적인 의견에 대하여 “I'm afraid ~ ”를 사용하여 좀 더 조심스런 표현을 하였고, “Actually,”, “ I know, but ~ ”, “please”처럼 완화 표지를 사용하여 상대방에게 직접적인 표현을 완충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하려고 하였다.

3학년 교과서의 마지막 단원의 학습 목표가 대화 시작하기이다. 이는 대화를 개개의 표현으로 익히기에서 발전하여 대화의 전체적 맥락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대화를 이해하고 학습할 것을 의도한 것으로 파악된다.

지금까지 살펴본 3학년 교과서의 대화 내용은, 부드럽게 대화를 시작하여 적절하게 요청 표현을 하거나, 청자의 의견과 다른 의견을 신중하게 표현하거나, 낯선 사람과 대화를 어떻게 자연스럽게 시작할지와 같은 담화 구조에 대한 내용이 많아졌다. 이것은, 학습자로 하여금 대화가 상황과 대화자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배울 수 있도록 해 준다.

D 출판사 3학년 교과서의 대화 예문에서 나타나는 대화자 사이의 사회적 지위와 사회적 거리는 309회 67%가 사회적 지위를 알 수 없는 경우로 가장 높은 빈도수를 나타낸다. Dialog에서 주로 친구 관계의 대화자들을 보여준 1,2 학년과 비교할 때 다른 점은 reporter, waiter, man같이 낯선 사람들과의 관계를 제시해 준다는 점이다.

이상과 같이 D 출판사 3학년 (D 3으로 표시)의 분석 결과를 표를 이용하여 요약하면 표32, 표33과 같다.

<표 32> Gibbs의 요청 표현에 따른 교과서 분석 (D 3)

단위: 사용횟수(%)

유형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합계
D 3	27(6)	27(6)	23(5)	11(2)	263(58)	0(0)	0(0)	74(16)	7(2)	7(2)	16(4)	0(0)	2(0)	457

<표 33> 사회적 관계에 의한 교과서 분석(D 3)

단위: 사용횟수(%)

유형	1	2	3	4	5	6	7	8	9	합계
D 3	0(0)	0(0)	3(1)	107(23)	0(0)	35(8)	3(1)	230(50)	79(17)	457

지금까지 D 출판사의 1학년부터 3학년까지의 교과서를 살펴본 결과, A, B, C 교과서와 공통적으로 직접 질문의 사용이 가장 많으며, 사회적 지위를 알 수 없는 경우도 사회적 관계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허가 유형의 요청 표현이 A, B, C 교과서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다.(27회 2%) 학년이 올라갈수록 가능, 진술, 부과, 위임의 표현이 증가하기는 하나, 이름과 소유 유형의 요청 표현은 단 한번도 사용되지 않아서 Gibbs의 13가지 유형을 골고루 보여주었다고 생각하기 어렵다. 대화자간의 사회적 관계는 1,2학년에서 사회적 지위나 사회적 거리를 알 수 없는 관계와 친구 관계의 대화에 치우치다가 3학년에서 낯선 사람과의 사회적 관계가 증가하여 심한 편중 현상을 어느 정도 해소한다. A, B, C 교과서와 마찬가지로 자연스럽게 공손한 대화 표현을 위해 완화 표지의 사용, 반대의견의 표현 방법, 자연스런 대화 시작 방법, 거절하기 등 대화 전개 방법을 관심 있게 다루고 있다.

D 출판사 교과서의 대화 분석 결과를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종합하면 표 34, 표35와 같다.

<표 34> Gibbs의 요청 표현의 유형에 따른 교과서 분석 (D 출판사)

유형	표현 예 (학년별)	1학년 (356)	2학년 (398)	3학년 (457)	총계 (1211)
1. 희망	1.I'd like there black shoes.	22(6%)	25(6%)	27(6%)	74(6%)
	2.I'd love to.				
	3.I'd love to help you.				

2. 가능	1.Can you answer this?	17(5%)	5(1%)	27(6%)	49(4%)
	2.Can you eat it?				
	3.Can you give me a hand?				
3. 진술	1.I'm looking for pants.	12(3%)	4(1%)	23(5%)	39(3%)
	2.I feel hungry.				
	3.I don't know how it works.				
4. 허가	1.Can I help you?	15(4%)	1(0%)	11(2%)	27(2%)
	2.May I help you?				
	3.May I please speak to Min-Su?				
5. 직접질문	1.Are you free this afternoon?	205(58%)	257(65%)	263(58%)	725(60%)
	2.How much should I sell it for?				
	3.What can I do for you?				
6. 이름	1.-	0(0%)	0(0%)	0(0%)	0(0%)
	2.-				
	3.-				
7. 소유	1.-	0(0%)	0(0%)	0(0%)	0(0%)
	2.-				
	3.-				
8. 직접요청	1.Put on your coat.	69(19%)	56(14%)	74(16%)	199(16%)
	2.Please tell me one, will you?				
	3.Don't be quick to pick it.				
9. 부과	1.-	0(0%)	0(0%)	7(2%)	7(1%)
	2.-				
	3.Would you mind repeating that?				
10. 위임	1.-	0(0%)	3(1%)	7(2%)	10(1%)
	2.Would you please say something with the word 'I'?				
	3.Would you like to leave a message?				
11. 비정형	1.Why don't you come?	14(4%)	44(11%)	16(4%)	74(6%)
	2.Why don't you bring some of them?				
	3.What about a cat?				
12. 내포	1.-	0(0%)	0(0%)	0(0%)	0(0%)
	2.-				
	3.				
13. 의무	1.You should be careful!	2(1%)	3(1%)	2(0%)	7(1%)
	2.Maybe you should change				
	3.Then you must do it.				

<표 35> 사회적 관계에 의한 교과서 분석(D 출판사)

	사회적 지위	사회적 거리	1학년 (356)	2학년 (398)	3학년 (457)	총계 (1211)
1	화자 = 청자	아는 사람	1(0%)	8(2%)	0(0%)	9(1%)
2	화자 = 청자	모르는 사람	0(0%)	0(0%)	0(0%)	0(0%)
3	화자 = 청자	가족	0(0%)	5(1%)	3(1%)	8(1%)
4	화자 = 청자	친구	70(20%)	82(21%)	107(23%)	259(21%)
5	화자 > 청자 화자 < 청자	아는 사람	7(2%)	7(2%)	0(0%)	14(1%)
6	화자 > 청자 화자 < 청자	모르는 사람	20(6%)	7(2%)	35(8%)	62(5%)
7	화자 > 청자 화자 < 청자	가족	2(1%)	7(2%)	3(1%)	12(1%)
8	나타나지 않음	모르는 사람	143(40%)	157(39%)	230(50%)	530(44%)
9	나타나지 않음	아는 사람	113(32%)	125(31%)	79(17%)	317(26%)

4. 결 론

본 논문은 4종 출판사의 중학교 1학년에서 3학년까지의 영어 교과서에 나타난 대화문에 대하여 요청 표현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요청 표현은 상황과 상대방에 따라 적절하게 표현되어야 한다. 이러한 요청 표현은 공손한 표현을 함께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왜냐하면 요청 표현은 상황과 함께 요청 받는 상대방이 순위 사람인지, 친구인지, 낯선 사람인지, 아는 사람인지 등에 따라 적절히 사용되어야 원활한 의사소통이 될 수 있으며 이는, 공손한 표현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요청 상황에서 쓰이는 표현들을 알아보기 위해 Gibbs의 연구를 살펴보고, Gibbs의 연구 결과로 얻어진 13가지 요청 유형을 기준으로 교과서의 대화문을 분석하였다. 또한 대화문에 나타난 대화자들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사회적 지위와 사회적 거리에 따라 9가지 경우로 나누어 요청 표현문을 분석하였다.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4종 출판사는 Gibbs가 보여준 13가지 유형 빈도수와 큰 차이를 보여준다.

<표 36> Gibbs의 요청 표현의 유형에 따른 4종 교과서 분석

유 형	Gibbs	A	B	C	D	총 계
1. 회 망	20%	11(2%)	69(5%)	58(3%)	74(6%)	212(4%)
2. 가 능	16%	43(6%)	139(9%)	57(3%)	49(4%)	288(6%)
3. 진 술	12%	11(2%)	7(%)	117(6%)	39(3%)	173(3%)
4. 허 가	12%	27(4%)	85(6%)	66(4%)	27(2%)	205(4%)

5. 직접 질문	12%	490(71%)	813(54%)	1069(59%)	725(60%)	3097(59%)
6. 이름	8%	0(0%)	0(0%)	31(2%)	0(0%)	31(1%)
7. 소유	6%	0(0%)	0(0%)	12(1%)	0(0%)	12(0%)
8. 직접 요청	5%	40(6%)	260(17%)	224(12%)	199(16%)	723(14%)
9. 부과	3%	0(0%)	0(0%)	12(1%)	7(1%)	19(0%)
10. 위임	3%	18(3%)	36(2%)	60(3%)	10(1%)	124(2%)
11. 비정형	2%	39(6%)	82(5%)	95(5%)	74(6%)	290(6%)
12. 내포	1%	6(1%)	7(0%)	7(0%)	0(0%)	20(0%)
13. 의무	0.1	8(1%)	6(0%)	7(0%)	7(1%)	28(1%)
총 계		693(100%)	1504(100%))	1815(100%))	1211(100%))	5222(100%))

<표 37> 사회적 관계에 의한 4종 교과서 분석

	사회적 지위	사회적 거리	A	B	C	D	총 계
1	화자 = 청자	아는 사람	43(6%)	3(0%)	0(0%)	9(1%)	55(1%)
2	화자 = 청자	모르는 사람	5(1%)	11(1%)	1(0%)	0(0%)	17(0%)
3	화자 = 청자	가족	0(0%)	6(0%)	3(0%)	8(1%)	17(0%)
4	화자 = 청자	친구	166(24%)	57(4%)	451(25%)	259(21%)	933(18%)
5	화자 > 청자 화자 < 청자	아는 사람	10(1%)	84(6%)	27(1%)	14(1%)	135(3%)
6	화자 > 청자 화자 < 청자	모르는 사람	33(5%)	83(6%)	66(4%)	62(5%)	244(5%)
7	화자 > 청자 화자 < 청자	가족	52(8%)	133(9%)	32(2%)	12(1%)	229(4%)
8	나타나지 않음	모르는 사람	137(20%)	316(21%)	1091(60%)	530(44%)	2074(40%)
9	나타나지 않음	아는 사람	246(35%)	811(54%)	144(8%)	317(26%)	1518(29%)
총 계			693(100%)	1504(100%)	1815(100%)	1211(100%)	5222(100%)

4종 영어교과서의 요청 대화 예문은 공통적으로 직접 질문의 요청 유형을 가장 많이 사용하였고 심한 편중 현상을 보인다. 3년 과정 총 A- 71%, B- 54%, C- 60%, D- 59%를 보여 주어 모든 출판사의 교과서가 50%를 상회하여 직접 질문 요청 유형에 의존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9 참조) 각각의 출판사가 3개 학년 각 교과서의 대화 예문을 한번도 중복되지 않게 실었으므로, 총 12권 교과서라고 생각해도 결과는 위와 동일하다. 즉, 모든 학년의 교과서 내용에서도 직접 질문의 요청 유형이 가장 빈번하다. 한 유형에 치우쳐 있어서 직접 질문 유형을 제외한 나머지 12가지 유형은 상대적

으로 적게 사용되거나 드물게 보이고 있으며, 한 종류의 영어 교과서를 제외한 3종의 영어교과서는 13가지 요청 유형 중 3년 내내 한번도 사용 하지 않은 유형도 있다. 주목할 사항은 호칭과 소유 유형의 요청 표현이 3종 교과서의 3개 학년 내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렇듯 4종의 교과서가 치우친 현상이 공통되며 다루고 있는 유형, 또는 전혀 다루지 않는 유형까지도 공통 되게 나타난 점은 4종 출판사의 교과서가 영어로 요청하는 의사소통의 표현 방법을 ‘요청하는 표현은 대체로 ~ 같은 표현’처럼 고정된 유형(pattern)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교과서에서 가장 많이 제시한 요청 표현도 실제의 모국어 사용자들이 많이 사용한다고 보고된 유형과 다르다. 교과서의 대화 예문이 직접 질문 유형에 편중된 또 다른 이유는 교과서가 갖고 있는 대화가 이루어지는 상황에 대한 태도와 관련 있다. 단원의 학습 목표가 “요청하기”로 설정 된 경우에만 의식적으로 직접 질문 이외의 다른 요청 유형의 표현을 예시하고 있다. 단원의 학습 목표가 “요청하기”로 제시되지 않았을 경우 대화 예문에서는 요청 표현을 일률적인 표현으로 취급하여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많은 대화에서 요청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4종의 교과서 대화 예문에서도 사실에 대한 정보를 알고자 하여 질문하기, 길 묻기, 물건사기, 약속하기 등에서 상대방과 대화할 때 요청 상황이 된다. 그러나 교과서에서는 이러한 경우 요청이라는 상황보다 단순한 질문 상황으로 취급한다. 그러나 Gibbs의 실험에서 주어진 상황들을 보면 (물건사기, 시간 묻기, 기계작동하기 등) 일상생활의 다양한 경우 요청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미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Gibbs는 요청 표현의 적합한 사용과 부적합한 사용은 대화의 상황과 대화의 전후 관계(문맥)와 중요한 관계에 있다고 했는데, 이처럼 몇 가지 유형만 학습하는 것은 실제로 부딪치게 될 여러 상황에서 이루

어지는 대화의 원활한 의사소통에 부족함이 있다. 4종 각 교과서의 1,2,3학년의 대화 예문 분석을 통하여 학년이 올라가면서 요청 표현의 다양성을 기대하였으나 요청 유형 표현은 지속적으로 직접 질문의 유형을 벗어나지 못했다.

그렇다면 4종의 영어교과서가 제시하는 대화문의 상황은 어떻게 제시되었는가 알아보면, 상황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림으로 제시한 경우도 상황을 특징지을만한 도움이 되지 않았다. 오히려 대화를 제시하고 상황을 추측해 보라는 지시가 있는 경우도 있었다. 이는 학습자들이 이미 그러한 대화를 많이 접했으리라는 가정아래 가능한 것으로, 모든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적합하지 못하다. 대화 예문의 대화자들 간의 관계 역시 애매하여 엄마, 선생님, 친구 등으로 뚜렷이 제시한 경우 외에는 학습자의 추측에 달려있다. 사회적 지위를 알 수 없는 경우가 A- 55%, B- 75%, C-68%, D-70%이다. (표 10 참조) 교과서의 내용 대부분이 상황과 대화자들 간의 관계를 중요도 있게 고려하지 않고 있어 학습자들도 대화 예문을 접할 때 크게 염두 하지 않을 것이 우려된다. 4종 각 교과서의 대화 예문을 통하여 등장인물들의 관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대화의 내용이 발전되고 심화될 것을 기대하였으나, 사회적 관계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사회적 관계에 따른 분석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각 교과서들은 대체로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긴 대화 예문을 보여주거나 들려주어 자연스러운 대화 방식을 보이고 있다. 요청 표현을 처음부터 꺼내지 않고, 완화 표지를 이용하거나 상대방의 응답을 고려하여 적절한 시점에서 말하는 것, 상대방의 의견에 반대될 때 조심스럽게 표현하는 것 등으로 공손한 대화가 이루어지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어 바람직하다고 생각 된다.

결론적으로, 4종 출판사가 제시하고 있는 대화 예문의 요청 유형 빈도는 Gibbs가 밝힌 모국어 사용자들의 요청 유형 빈도와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한 가지 유형에 심각한 편중 현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므로 원어민 사용자들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교과서에서 한 가지 요청 유형을 사용하는 대화 예문을 지양하고 상황에 맞게 다양한 요청 유형을 학습할 수 있도록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이때 대화가 이루어지는 상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상황과 대화자들의 사회적 관계를 세심하게 제시하는 것 또한 교과서가 다루어야 할 문제이다.

참 고 문 헌

- 김 성곤 외 4인. (2004). *Middle School English 1*. (주) 두산.
- 김 성곤 외 4인. (2004). *Middle School English 2*. (주) 두산.
- 김 성곤 외 4인. (2004). *Middle School English 3*. (주) 두산.
- 김 용진 외 7인. (2004). *Middle School English 1*. (주) 디딤돌.
- 김 용진 외 7인. (2004). *Middle School English 2*. (주) 디딤돌.
- 김 용진 외 7인. (2004). *Middle School English 3*. (주) 디딤돌.
- 이 성호 외 5인. (2004). *Middle School English 1*. (주) 지학사.
- 이 성호 외 5인. (2004). *Middle School English 2*. (주) 지학사.
- 이 성호 외 5인. (2004). *Middle School English 3*. (주) 지학사.
- 이 병민 외 4인. (2004). *Middle School English 1*. (주) 천재교육.
- 이 병민 외 4인. (2004). *Middle School English 2*. (주) 천재교육.
- 이 병민 외 4인. (2004). *Middle School English 3*. (주) 천재교육.
- 김 응용. (2003). *중1 영어 교과서 대화문 분석*.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 이 용경. (2001). *중등 영어 교과에 반영된 화용론적 공손 표현 분석*. 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 홍 이선. (2002). *중학교 2학년 영어 교과서 대화문 분석*.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 Brown, P., & Levinson, S.D.(1987). *Politeness: Some universals in language usa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Gibbs, R . W. Jr. (1981). "Your Wish Is My Command: Convention and Context in Interpreting Indirect Requests," *Journals of*

Verbal Learning and Verbal Behavior 20, 431-444.

_____. (1986). "What makes some indirect speech acts conversational?," *Journals of Memory and Language* 25, 181-196.

Thomas, J.(1983). Cross-cultural pragmatic failure. *Applied Linguistics*, 4. 91-112.

ABSTRACT

An Analysis of Dialogs in Middle School English Textbooks Focusing on Request Expressions

Kim, Mi-yeon
Major in English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e aim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differences of expressions of request distribution between the dialogs in Korean middle school English textbooks and those of native English speakers in conversation. This study will suggest recommendation for developmental use of English textbooks in Korea. The expression of request is one of the main difficulties for Korean learners of English. Various situations provided in the textbooks are too limited to cover the entire range of expression of requests.

This study is based on the request types and frequency of Gibbs and social factors according to the social standing and distance for the analytical standard for survey. The purpose of Gibbs's study was to examine how people interpret indirect requests in everyday conversations. Gibbs's analysis reveal that native English speakers use 13 different semantic devices in making requests. Gibbs recommends that a good measure of a semantic

device's conventionality is how frequently it is used in a particular context.

This study also analyzed 5,222 examples of dialogs in the 12 textbooks for the three years of middle schools for analytical contents. Among those dialog examples, polite expressions applying to the request in daily life, are analyzed.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ed : First, this survey showed limited request expressions in textbooks. Nearly over 50% of those expressions focus on "direct question category" among Gibbs's 13 categories. On the contrary, "want/desire category" is the most frequent expression among Gibbs' categories but Korean middle school English textbooks showed only 4 % in dialogs. Secondly, there were 69% of the examples that do not show any information and descriptions about the speaker's social standing and distance. Most frequent cases were same social standing or position between friends (18%). Therefore, it is very hard for learners to study appropriate expressions of request for various cases with dialogs in the textbook.

To solve these problems, dialog with various request expressions must be provided with diverse social factors. Also, the textbook must provide dialogs in more realistic situation so that they are able to speak naturally.